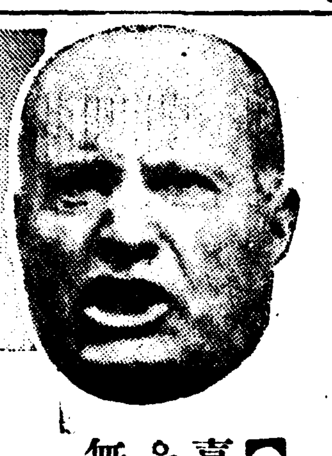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四日(金)

伊에戰端遂勃發·國際政局險惡化!



아도와空襲第一日 死傷者一萬七千名

南方國境에는國軍八百名殲滅?

英紙報道엔千七百名說

【아디스아베바三日發至急報聯合】伊太利空軍의 精銳爆擊機四臺는 三日午後再次 아도와地方上空에 襲來하야 第二回의 爆擊을 行하엿는데 損害가 豫想外로 多하야 아도와市에서만 死傷無慮 一萬七千名에 達하엿다고 傳한다

千七百名說 【倫敦三日發電通】『데일리텔레그라프』紙의『아디스아베바』發電에 依하면『아도와』의 戰鬪에서 兩軍의 死傷은 千七百餘名에 達하엿다고한다

에軍八百殲滅 【아디스아베바三日發電通】南方前線의 情報에 依하면 伊太利軍地上部隊는 三日午前 이미 國境線으로부터 에디오피아 領內七키로까지 들어갓는데 右部隊에 抵抗을 企圖한 에디오피아兵 八百은 機關銃의 一齊射擊을 바더 多數의 戰死者를 내엇다

伊軍投下爆彈 七十七個를發見

【쥬네브三日發電通】에디오피아政府가 聯盟에 보낸 電報에 依하면 아도와及 그附近에서 伊太利軍飛行機의 投下한 爆彈七十七個를 發見하엿다고 한다

에國全土占領엔 二個年을所要!

伊國은四五個月豫想

【羅馬三日發電通】뭇솔리니伊首相이 總動員令을 發布한데 對하야 一般 伊太利國民은 全國民이 뭇솔리니 首相의 東阿植民地確正을 爲한 軍事行動을 支持하고잇는것이 明白하야 歐洲의 어느나라도 伊太利의 行動에對하야 干涉을 不許할 決意를 굿게하고 또 伊太利의 態度가 公明한 以上 今後 東阿의 戰爭이 歐洲大陸에 波及하는 일은 全然 업슬것이란 信念을 抱懷하고잇다 三日朝의 羅馬全市의街路에는 國旗가 揭揚되어잇고 國旗에는 全國民의 熱烈함을 促한 포스터가 貼付되어 國民的好戰熱을 煽揚하엿다 伊太利軍은 이三個月 乃至 四個月間에 決定的戰爭을 決行하야 雨期再來前에 戰局은 伊太利軍의 勝利裡에 最後的終結을 告할것이라고 期待하고잇다 그러나 伊太利軍은 短時日間에 에디오피아全土를 占領하기는 不可能하야 그것에는 最小限二個年의 時日을 要할것으로 보인다

에國軍의奇襲에 伊太利軍總退却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伊太利軍이『마레브』河를 渡하야 大擧『에』領土內에 進軍을 開始한結果『아도와』『아디그라-드』其他를 中心으로 北部『티그레』州一帶에서 에國軍과의間에 壯烈한 肉彈戰을 展開하게되엿는데 果然 果敢獰猛한 黑人軍은 天嶮에 據하야 巧妙한 奇襲戰法을 써서 最新兵器를 자랑하는 伊太利軍도 逐次後退할수박게 업시되엇다고 傳한다 에디오피아 政府側의 報道에 依하면 伊太利軍은『티그레』州 北方의 高原地帶의 激戰에 敗北하고 僅僅優勢한 空軍의 掩護로 國境方面에 退却하는 中이라고 한다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伊太利軍 陸軍部隊는 有力한 空軍援護로 羊腸의 經路를 進出하야 아디라트로부터 아도와로 向하엿는데 精悍無比한 에디오피아軍의 奇襲에 못견듸어 敗退하얏다고 傳한다

侍從武官御差遣 師團對抗演習에

【朝鮮軍司令部發表】天皇陛下께옵서는 來十一日부터 湖南地方에서 擧行되는 師團對抗演習에 侍從武官 陸軍步兵少佐 後藤光藏氏를 御差遣하옵시기로 決定하셧다 同侍從武官은 十一日發 山上線 同日演習地에 御到着 群山府錦山町鈴木忠之丞方에 宿泊御豫定이시다

에國釋放囚人 七千名前線에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祖國存亡의 危機에 直面하야 大赦를斷行하야 囚人七千은 三日朝 釋放되어 勇躍前線에進軍하엿다

埃及軍移動開始

【알렉산드리아三日發電通】傳하는바에 依하면 伊에開戰에伴하는 危局의 擴大에 備코저 埃及軍은 外部의 攻擊을 바들憂慮가 잇는 地點에 向하야 續續 移動을 開始하엿다고한다

"戰鬪狀態로處理" 伊辦務官의布告

—事實上의宣戰布告—

【모가지스치오(伊領소말리란드)三日發電通】伊領植民地高等辦務官 데·본노將軍은 에리트리아及 伊領소말리란드와 에디오피아의 關係는 三日부터 모다 戰鬪狀態에 들어간것으로 認定하고 處理하겟다는旨의 布告를 發하엿다 右는 宣戰布告와 事實上 그 意義가 가튼것이다

赤十字病院爆擊

國際法無視코 伊軍行動에輿論沸騰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三日午後 宮廷에記者를 引見하고 沈痛한 얼굴로伊太利空軍의 暴狀을 指摘하야 如左히言明하엿다

只今 티그레州知事 낭가스아將軍으로부터 나에게 到達한 電報에 依하면 伊太利空軍所屬爆擊機는 三日朝來 아도와에 爆擊을加하얏는데 最初의 爆彈은 아도와의 赤十字野戰病院에 命中하얏기때문에 看護婦 數名은 慘死를 遂하고 或은 重傷을 負하엿다

赤十字病院은 國際法上 中立地位를 保障바더 赤十字旗에 對한 軍事行動은 國際法의 嚴重禁止하는바로서 에디오피아國皇帝의 言明하는바와가티 伊太利空軍이 赤十字病院을 爆擊하얏다고 하면 重大한 國際法侵犯行爲라고 全世界의 熱烈한 非難을 不免할것으로 解釋한다

【쥬네브三日發電通】에디오피아政府는 聯盟에 對하야 四臺의 伊太利飛行機가 三日午前十時에 아도와의 赤十字病院을 爆擊하엿다는 旨를 電報로서 報告하엿다

理事會드디어 制裁案을發動

【쥬네브三日發聯合】聯盟理事會는 五日午前十時부터 緊急會議를 開催하고 對策을 審議하기로 決定하얏는데 理事會는 畢竟 五日의 會議에서 侵略國伊太利에 對하야 制裁案發動을 決定할것으로 보인다 制裁案은 規約第十六條第一項의 經濟金融뽀이코트가 될터이다

制裁規定發動에 에디오피아엔援助하고 伊太利品은뽀이캇트! 英佛間意見一致

【巴里三日發聯合】英國代表이-든 無任所相은 巴里駐箚大使클라크代表를 帶同하고 三日午後七時 佛國外務省에 라발首相을 訪問하고 會談一時間半에 及하엿다 席上에서 英佛兩國代表는 五日午前十時부터 再開될 聯盟理事會의 議事方針에 對하야 愼重協議를 遂하얏는데 이미 伊軍이 全面的으로 進出을 開始하야 에디오피아領土를 侵犯한 事實이 明白한以上 聯盟理事會는 斷乎旣定方針을 堅持하고 侵略國伊太利에 對한 經濟封鎖의 鐵槌를 加할밧게 업다는데 意見이 一致되엇다 但 스에즈運河의 封鎖는 英佛兩國과 伊太利海軍과의 衝突의 念慮가 잇슴으로 結局 刻下의 情勢로는 一切의 兵力制裁는 斷念하되 聯盟規約第十六條第一項의 規定에 基하야 伊太利國과의 사이의 一切의 通商金融上의 關係를 斷絶할 方針을 決定하엿다 英佛兩代表는 五日 理事會에 左의 三項으로 된 具體案을 提示하기로되엇다

一、聯盟國은 卽時伊太利와의 사이의 金融上經濟上의 關係를 斷絶함

二、에디오피아政府에 對해서는 武器輸出禁止를 解除하고 皇帝하일레·셀라시에陛下에게 對하야 金融上 必要한 援助를 與할것

三、聯盟國은 一切의 伊太利品을 뽀이코트하고 또 自國品을 伊太利에 輸出하는 것을 禁止함 軍需品 乃至 軍需品原料를 伊太利國에 輸送販賣하는것을 嚴重히 取締함

英佛兩國代表의 會談은 午前八時半 終了하엿는데 終了後 左의 콤뮤니케가 發表되엇다

◇콤뮤니케

英佛兩國代表는 來聯盟理事會의 議題에 對하야 協議를遂하고 採擇할 各般의 方策을 考慮하엿다 兩代表는 다시 쥬네브에서 協力을 繼續하기로 하엿다

右會談을 終하고 小憩後 이-든 無任所相은 夜行列車로 巴里出發 쥬네브로 向하엿다 佛國代表 라발首相도 亦四日夜 國務를 終了後 함께 쥬네브에 赴하기로되엇다 (寫眞은 이-든氏와 라발首相)

뭇솔리니伊首相 獨逸大使와密議

【羅馬三日發電通】뭇솔리니伊首相은 三日夕刻 베네치아宮에 獨逸大使하셀氏의 來訪을 求하야 長時間동안 密議하엿다 이會見에서 뭇솔리니首相은 聯盟이 對伊經濟的、財政的制裁를 適用할 境遇에 獨逸로부터援助를 受하고십다는 旨의 意思表示를 하얏다고 確聞되는데 뭇솔리니首相이 獨逸을 伊에戰爭에 끄집어너허 同國이 가진 特殊的立場을 利用하야 英佛牽制의 演劇을 企圖하고잇는것은 疑心업는 事實로서 今後의 伊獨關係의 進展이야말로 歐洲의 勢力均衡에 一大變革을 齎來할것으로 注目된다

統監部編成決定

【朝鮮軍司令部發表】=師團對抗演習의 統監部는 如左히 發表하엿다

▲統監部

統監 大將 植田謙吉

幕僚長 侯爵少佐 前田利爲

幕僚 騎兵大佐 小畑英

同 步兵大佐 大野宣明

同 步兵中佐 三浦忠次郎 外九名

▲統監部附

少將 大串敬吉

步兵中佐 三浦忠次郎

步兵少佐(兼) 熊谷則正

▲附屬第一班

航空兵大尉 瀨戶克己 外七名

▲附屬第二班

步兵大佐 大澤進一 外五名

人事·集會

▲矢島農林局長 六日午後三時京城驛發釜山에出張

▲堂本貞一氏(總督府商工課長) 同上

八面鋒

◇ 날나하든 란리는 畢竟 나고야 말앗다。

◇ 三日부터 空中爆擊을 開始한 伊太利軍은『아도와』에서 野戰부터 시작。

◇ 一萬七千名이 죽엇느니 一千七百名이 죽엇느니 하야 벌서부터 戰報가 區區。

◇ 聯盟이 統소리를못고 緊急理事會를 연다하든가。

◇ 制裁를 못할지경이면 各國代表가 豫備隊나 組織해가지고『아도와』로가소。

◇ 그리하야、戰爭의慘禍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금 見學이나하소。

建物非密集으로 空襲被害는僅少

民家百餘戶破壞에不過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三日早朝의 伊太利空軍最初의 空爆目標가된 北部에디오피아軍司令部의 入電에 依하면 伊空軍이 多數의 爆彈을 投下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建物이 密集的이 아닌것과 空爆을 豫期한 에디오피아側이 이미 避難方法、財物隱匿準備를 完了한것等에 依하야 被害는 意外로 僅少하야 아도와에서는 겨우 民家十五戶가 破壞되엇슬뿐이어서 그러나 아베이그라트(아드와東方二十哩)의 被害는 이보다 좀커서 約百戶의民家가破壞되엇다 그런데 部落民의 大多數는 豫定한 避難地에 避難하얏기 때문에 死傷者는 意外로 적은 模樣이다

에國軍精銳五萬 할랄以北에集結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에디오피아軍의 精銳五萬은 할랄以北에 集結을 了하엿다 東部戰線指揮下에 東方으로부터 進擊하야 伊太利軍에 當할것으로 보인다 一方 제일라港으로부터 英國兵 퀘코兵가튼 軍人이 數百에 滿載되어 할랄에 輸送되엇다고 傳한다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伊太利軍東方部隊는 二日 소말릴란드에 隣接한 에리트리아國境地帶를 突破하야 一齊히 進軍을 開始하엿는데 傍若無人之勢로 高原地帶에 들어가다 雨期後의 陽光의 酷熱로 伊軍將兵은 多大의 苦惱를 맛고잇는데 에디오피아軍은 이미 同地方一帶로부터 撤收하엿기때문에 進擊은 無比의 快速을 示하고잇다 에디오피아軍은 아우사平原으로부터 羊腸한 山岳地帶에 入하야 伊軍을 邀擊하야 대번에 壞滅하려는 作戰을 세우고 皇儲아스하부센殿下가 四方의 精銳를 引率하고 作戰中인데 伊에兩軍主力 衝突은 東方戰線에서 展開될것으로 觀測된다

希臘船主協會 伊國向貨物取扱中止

【아덴스三日發聯合】希臘船主協會는 伊에兩國의 戰端開始에 鑑하야 伊太利로 向하는 貨物取扱을 中止하기로 決定하고 三日所屬船舶에 左의 指令을 發하엿다

伊太利로 向하는 貨物及 伊太利로부터 輸出되는 貨物은 今後 一切 取扱을 中止할것 極東航路에잇는 船舶은 스에즈運河를 通行하지말고 喜望峰을 迂回할것

五個國小委員會開催

【쥬네브三日發電通】十三國委員會의 任命한 五個國小委員會는 三日午後七時十分 初會合을 行하야 十三國委員會에 提出할 報告書를 決定하엿다 明四日午前에 再開하고 報告書를 完成하야 午後에 이것을 十三國委員會에 提出하기로되엇다 十三國委員會는 右小委員會의 報告書를 基礎로 理事會에 對하야 規約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한 報告書를 作成하야 伊에兩國의 歷史的 關係와 紛爭에 關한 事實의 經過 伊太利의 侵略行爲를 記述하고 이것을 材料로 報告書의 最後部分에 勸告案을 作成할 必要與否를 決定할것으로 보인다

聯盟空中巡邏隊派遣

【쥬네브三日發聯合】十三人委員會는 聯盟實行委員의 前哨로 現地에서 空中巡邏隊를 派遣하야 事實上 國境侵犯事實을 確認할 方針이라고 報告되다 巡邏隊派遣에 對해서는 地理的關係上 佛領政府의 協力을 要請하야 지부티로부터 飛行하게될것이다

埃及의英軍部 國境防備强化

【알렉산드리아三日發電通】埃及駐在英國高等辦務官 람손氏는 三日海上飛行機로 當地에到着하야 英國駐屯軍司令官과 埃及正規軍의 會長等과會見하고 埃及正規軍과 協力하야 國境守備强化를 決定하고 잇섯다고 傳한다 그리고 埃及 西北線伊領리비아國境에 沿하야 이미防備工作이 着着進行中이다

에디오피아戰略과 戰線防備의現勢

에軍動員兵力百十萬

【아디스아베바三日發聯合】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 命令一下 에디오피아人壯丁은 戰國戰時動務에 들어갓는데 卽時 第一線에 出動할 에디오피아軍 全兵員은 無慮百十萬이라고 하며 裝備되던 武器彈藥도 에디오피아作戰本部에서는 豪壯히 二個年을 支撐할수잇다고 豪語하고잇다 에디오피아軍에서는 北方의 要地 아도와에서 驀進하는 伊太利軍을 阻止하고 東方戰線에서는 맛사·아리山脈을 迂回하는 敵軍을 山岳中에서 邀擊하야 奇襲戰法을 取할方針이라고 解釋되는바 南方戰線에서는 總指揮그라리아니將軍이 伊太利軍 屈指의 名將으로 곳까지 周密한 作戰行動을 取하야 容易히 猪突進軍은 아니하리라고 觀測된다 以上 東北南三方面의 戰線에서 第一戰의 作戰行動에 豫期의 成果를 거두고 伊太利軍에 相當한 打擊을 與하면 適當한 時期에 프로르州의 要所 데세이線에 後退하야 以逸待勞의 戰術을 取하야 皇儲아스하브센殿下의 指揮下에 主力을 集結하야 伊太利軍에 殲滅的打擊을 與할作戰이라고 解釋된다 主力의 衝突을 압두고 祖國의 防衛에 悲壯待機의 에디오피아軍의 戰備는 槪要 如左하다

▲에리트리아方面

北軍 兵數 二十萬 總指揮 라스、숨、망가스아 配備地域 티그레地方 主要都市 아도와

北西軍 兵數 二十二萬 總指揮 라스、캇사、달게 配備地域 아므하라地方 主要都市 곤달

中央軍 兵數 約二十萬 總指揮 皇儲아스하부센殿下와陸相라스、물게타 配備地域 워로地方 主要都市 데세이

東北軍 兵數 十五萬 總指揮 데샤스、하일레、셀라시에、구구사 配備地域 그나라地方 主要都市 마카래

中西軍 兵數 四萬 總指揮 라스、이멜 配備地域 고잠地方 主要都市 데브라、말코스

瀕東軍 總指揮 하브라、미카엘

▲소말릴란드方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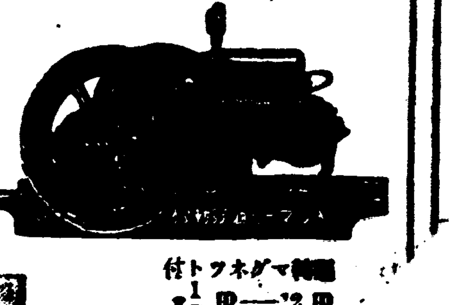
中東軍 總指揮 데자즈마치、네시브 配備地域 하랄地方 主要都市 하랄

東南軍 總指揮 아리눌 配備地域 오가덴地方 主要都市 사자바네

南部國境方面軍 總指揮 라스、게타추 配備地域 마지地方 主要都市 마지

▲中央近衛軍 配備地域 아디스아베바

ダイフク石油發動機 高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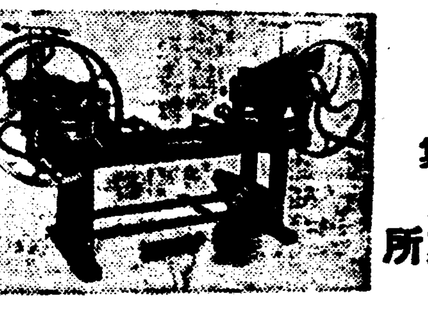
北村式製麵機

各號手廻機

各種動力機

附屬機部分品

在庫豊富



マグネット付 1½馬—12馬 豊富在庫

特約店募集 (型錄進呈)

京城府黃金町二ノ一八一

北村鐵工場營業所

電話本局五三一八番 振替京城二二四七番

第三回外務員講習生募集

一、中等學校卒業 二十五才以上 府內에서 活動할男子

一、講習中手當給與함

一、希望者는 履歷書送付

京城府南大門通二

日本生命 朝鮮支店督勵部

腫氣 青山膏 에옴 히벡고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성룡선생】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 만흔 大事業家名士들의관상을보고 大好評을밧는 관상계의 권위자입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헤매는분、適業을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에서子息을求하는분、株式、期米、鑛山業으로 큰利益을보나、당선하나를 알랴는분、其他、訴訟의勝敗等 어떠한問題든지 聖龍先生은 明確하게親切히 判斷하며 신수平生의길흉 功의길을 보여주는貴로 보람잇고갑잇는判斷입니다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生年月日과 眞作을자세히적으시고 료금을 보내시면 자세히회답해드리니다 (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함)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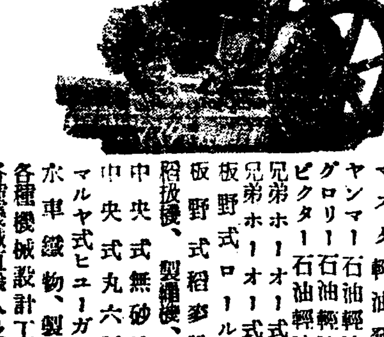
專務取締役 堤永市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大和町

發動機界最高權威

最新十年型

マスター輕油發動機



(鮮滿總發賣)責任保證附

マスター輕油發動機

ヤンマー石油輕油發動機

グロリー石油輕油發動機

ビクター石油輕油發動機

兄弟ホーオー式籾摺機

坂野式ロール籾摺機

坂野式籾麥脫穀機

脫穀機、製繩機、旋風機

中央式無砂精米機

中央式丸六製粉機

マルヤ式ヒューガルポンプ

水車鐵物、製油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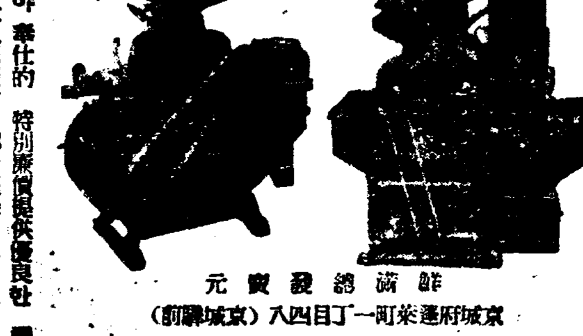
各種機械設計工事請負

各種機械直輸入及製作元

農林省比較審査最高金牌受領 共進會博覽會賞牌受領二十數回

(兄弟ホーオー式) 一號型唐箕付籾摺機

(兄弟ホーオー式) 特號型全自動選別機



鮮滿總發賣元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京城驛前)

中央商工社營業部

電話本局四三七三五番・振替京城六一二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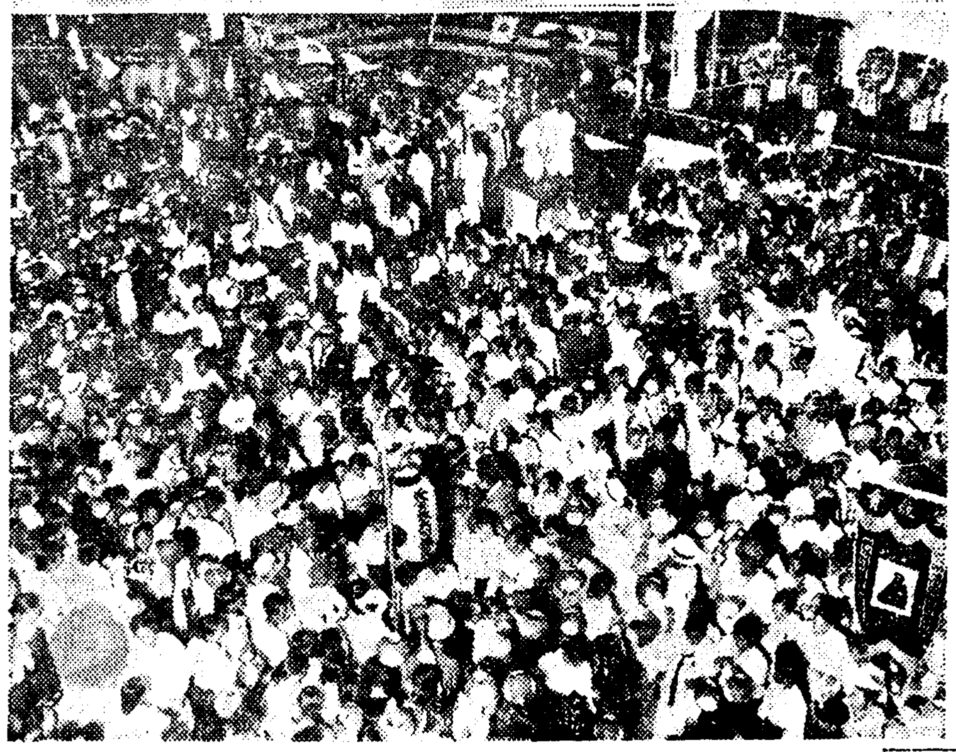
鐵工部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

電話本局一五二六番・振替京城一九七六二番

農村救濟를爲하야 奉仕的特別廉價提供 優良한 機械를 購入하시라면 이제 弊社로御照會 即時型錄 送呈代理店募集합니다

敎皇大使 歡迎會로開幕된 傳敎百五十年記念式

六千信徒의祝賀提燈行列 "카톨릭"萬歲로始終



【平壤】 천주교 조선전래백오십주년긔렴식은 이일오후두시오십분 동경주재 『마렐라』 교황대사의평양역도착환영식으로부터 개막되엿다

『카토릭』 교가 조선에 선교된지 한세긔반동안에 처음으로보는 대성전인 이회합에 참석키위하여 『마렐라』교황대사는 『라리보』 경성교구주교 『사위ー』원산교구주교 『데망즈』대구주교 『보레어ー』만주 연길주교등을 대동하고 하차하자 목(睦)평양교구주교 량긔섭(梁基涉) 사찰등이 『카토릭』소년군과 교구각부 단들을 위시하여 도(道)、간누、각 신문사관계자들이 『풍래드롱』까지 환영하엿고 역구외에는 천주교관계긔관 성모보통학교(聖母普通學校) 남녀 륙백명생도를 위시하여 사십여단체 십로륙천여명 신도들이 환영순비를 하고 기다리고잇섯다

등전(驛前)여장의 선두안내로 귀빈실(貴賓室)에 드러 잠간쉬여가지고 교황사절 만세 련호성리에서 귀빈실에서 나아와 교황사절환영가가 우렁찬 군악과 합저서 일어나는가운대 『감사합니다』의 인사를 던지면서 일일히 답례한후 자동차를 달리어 도청에 잠간들리어 안무(安武)지사와인사를 교환한후 일로 관후리(館後里)회당 평양교회당으로 향하엿는데 과거 한세긔반동안에 전후세차례에 삼만여명의 순교자의 흘린피는 급기야 오늘의 신도십삼만을 가지고 력사적 광경을 전개하기에 이른것이다

平壤敎會에서 盛大한歡迎式

오후네시부터 교황대사를 마지한 대회장의 봉부인 평양교회당에서는 교회청원에 가설한 무대에서 『마렐라』교황대사의 환영회가 열리엇스니 광활한 동회장은 륙천여 선남선녀들로 가득히 모이어실로입추의 여지가 업섯다

목평양교구주교의 선두로 교황대사는 단에 오르자 목주교의 개회사로 식은 열리엇다 교구를대표하여 김성호(金聖鎬)씨의 축문랑독 례물진정 환영가의 뒤를이어 『마렐라』 교황대사가 회장을 떠나보낼듯한 박수성리에 일어나 간곡한 답사를 량긔섭사찰의 통역으로 마치고 식은 다치엇다

六千善男善女 祝賀提燈行列

깃븜을 마지한 카토릭교회에서는 대회첫날인 이일오후 여덜시부터 축하대제등행렬(祝賀大提燈行列)을하엿다 대회장 관후리천주교당에 집합한 경성、대구、원산、연길、평양등 다섯교구사십여단체의 칠천여명신도들은 손에등불잡고 광채가 찬연한 자유、평등、박애의 표징인 십자가(十字架)를 선두로 가다제긔ー人발을 날리면서 악대를 선두로 출발하여 관후리교회를 출발하여 승인동ー서문바ー경창리ー설암리ー총로ー남문통ー수옥리ー[illegible]나 교회에도라가 카토릭교회만세 삼창으로 폐막하엿는데 불야성을 일우운 장사진의 대행렬은 평양시내를 불바다로 화하게하엿섯다 이리하여 조선의『예루살넴』평양은 천주교백오십주년 기념제 속에서 제일일을 마치엇다

(사진은 교황대사일행과 축하식장)

內外賓客이參集 盛大한大祝賀會

本社方社長의祝辭도代讀 夜間은大講演會開催

【平壤】 천주교조선전래 백오십주년축하식 제이일은 오전아홉시부터 『마렐라』교황대사주재 『라리보』경성교구주교(京城敎區主敎) 집례아래에서 집행된대례미사는 장엄한장면을 보히고열한시경에 끗마친후 다음으로 교리경쟁대회(敎理競爭大會)가잇고 오후네시부터 대축하식은 카토릭소년『빤드』의 주악리에서 막이열리엇섯다 천사가티 아당스러운 그리고순결한 수녀합창대(修女合唱隊)가부르는 복자찬양가(福者讚揚歌)와 가티 량긔섭(梁基涉)신부의사회로 절차는진행되니 한세긔반동안의 략사보고를 홍(洪)신부가 랑독하고축사에 드러가 『마렐라』 교황대사 안무(安武)평남지사 조선일보사장 방응모(方應謨)씨(平壤支局長代讀) 동아일보사장 송진우(宋鎭禹)씨등의 간곡한 축사가 끗나자 목(睦)평양교구주교의답사가잇섯고 조만식(曺晩植)씨발성으로 카토릭조선전래만세삼창(萬歲三唱)으로 이려사적 대축하회는 막을다치엇다

이어서 사백여점의 진귀한순교자들의 유물을 진설한 사료전람회(史料展覽會)공개와 야간에는 백선행긔렴관(白善行記念館)에서긔렴대강연회(記念大講演會)가성황리에서개최되엿다

中國共黨員押來

義州出生韓龍權으로上海서被捉 四日仁川入港平安丸으로

【仁川支局電話】 사일오전여덜시 상해(上海)발인천입항평안환(平安丸)에는 상해령사관경찰의손에 붓들리인 중국공산당원한명을 야전(野田)형사가 호송하야왓는데그는 본적을평북의주군 비현면영평동(義州郡枇峴面永平洞)에둔 한룡권(韓龍權)(二三)으로방재상해서 중국공산당원이 되여활동하든터로 얼마전에 평북경찰부에서 검거취조중인 군관학교생사건에 련루로평북경찰부의 수배로 붓들어온것으로 배에서내리자 기두르고잇던 평북경찰부형사의손에 인도되여 오전열시에 십구분열차로 즉시 신의주로압송하엿다고한다

蘇聯서潛入한 金乙釗二年役

로서아 해삼위(海蔘威)로부터 조선적색로동조합조직의 지령을바더가지고서울에잠입하엿다가동대문경찰서에 검거되든 로서아공산당원 김을쇠(金乙釗)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은 사일오전 경성지방법원에서 엄권판사 대판(大坂)검사 담임으로공판이 열엿섯는데 피고는해삼위에서 로동학원에 입학하야 공부한사실과 로서아 공산당에 입당하엿다는 사실과 조선안에 들어와서 공장로동자를 획득하야 적색로동조합을 조직하고 십개월만에 로서아로 도로돌어가려하엿다는사실을 전부시인하엿다 검사는 징역이년구형을 하엿다 판결은 오는칠일에 언도하게되엿다

朴機大阪着 京城은明日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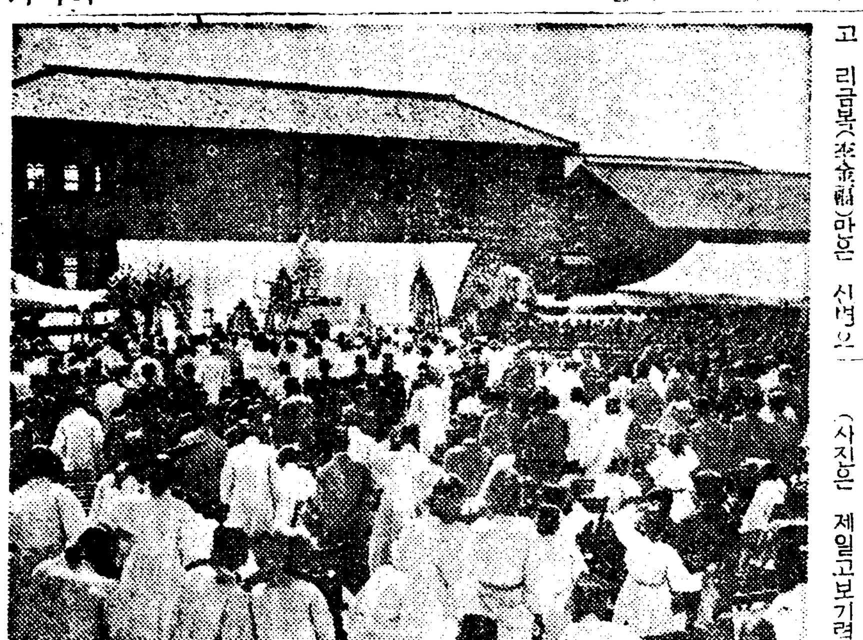
大阪서機械를修理코

【大阪支局特電】 고국방문의 계획을한 일등비행사 이등항공사(一等飛行士二等航空士) 박봉지(朴奉祉)군은 금일 아츰칠시이십오분 동경(東京)을 출발하야 대판(大阪)에 오는도중 "깨소링"의부족으로 할수업시 팔일시(八日市)에착륙하야 그곳에서 "깨소링"의 보급을밧고 대판에는 예정보다 다소늣게 오전십일시 사십오분에 목진천(木津川)비행장에 착륙하야 박군의 선배로 일등비행사 이등항공사인 일본항공수송연구소(日本航空輸送硏究所) 목진천(木津川)출장소소장 장덕창(張德昌)씨와본사 대판지국장 김광수(金光洙)씨와 본사지국원들에게 영접을 바덧는데박군은다음과가치말한다 『금일은 비교적 천긔가 량호하얏스나 락십미돌되는 마조치는바람이 잇서서 다소 곤난이잇섯스나 그쯤은 아모것도 안이엿다 비행긔에다소 손볼곳이잇서서 대판서 수선한다음 명조(明朝)에출발하겟습니다』

今日一高에盛事

創立卅五週年記念式典擧行 勤續敎員表彰式까지

시내 화동(花洞)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京城第一高普) 제삼십오주년 긔념식은 사일오전 열시부터 그학교운동장에서 삼백여명의 래빈도 참석한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엿다 열한시 십분에 식은필하고당일은 근속현구직원표창식 위령제 전람회 영화회 학예회 연대 교장 환영회 축연등이 잇고오일과 륙일에는 계속하야전람회와 영화회가잇슬터이며 칠일에는 륙상운동회가 열리리라한다



(사진은 제일고보긔렴식)

行刑累進處遇令 朝鮮서도實施確定

成績良好囚人은獄外散步까지容許 完備刑務所부터順次實施

법무국에서는 행형(行刑)교육주의에 의하야 수용자의 처우(處遇)를 개선하고저 이번 형무소장회의에서 루진 처우령(累進處遇令)을 조선에도 실시할 여부에 대하야 자문하엿든바 전부이에 찬동을 하엿슴으로 법무국에서도 조선에 실시할 방침을 확립하엿다한다

그런데 사법성 관하에는 작년일월부터 실시하야 매우 조흔 성적을 엇고잇는데 조선에서는 형무소가 전부조만원의 수용을 하고잇스며 독감방이적어서 곳처우령의실시를하기는 곤난한상태에잇섯다 그러나 이번에는근본방책이 확립되엇슴으로 우선대도시의 형무소로서 비교적설비가 정돈된곳부터 실시하되 명년에 정식으로 루진처우령을실시할때까지 법무국장의 훈령(訓令)에의하야 중요형무소장의 자유재량(裁量)으로 처우개선을하야 성적의 조흔 수용인에게는 음식 이복 서신기타 각종의자유를 허하며 형무소내의 자유산보등을 용인하게 되다한다

그러나 루진처우규측을 부령으로 정식제정하게되면 형무소외의 산보 기타 출옥후에 곳사회에서 활동하기쉽게 여러가지의 자유를 주게되는것으로 행형상 중요한 대우개선법령의 실시이니만치 주목되는것이다

答辯을利用"아지" 法廷서萬歲高唱

劈頭엔轉向者分離公判要求 共靑事件二回公判

【咸興支局電話】 조선 공산청년동맹(朝鮮共產靑年同盟)사건피고 옥봉흥(玉鳳興)등 시십삼명에 관한 속행공판은 사일오전 아홉시 삼십오분부터 함흥지방법원에서 개정되엿는데 공판정에는 아츰일즉부터 방청객이 밀려와잇섯스나 피고 가족들 오십여명에게만 방청을 허하고 시작되엿다 피고가운데 녀자피고 리금복(李金福)만은 신병으로인하야 출정치 못하엿다 피고 유축운(柳丑運)(二一)부터 심리를 계속하게 되엿는데 심리하기 전에 피고 정태옥(鄭泰玉)이가 일어나서 전향(轉向)을 선언한 피고 진해룡(陳海龍)(二七)과 가튼 배반자와 한자리에서 심리를 바들수업스니 그와는 분리심리를 하여달라고 요구하야 재판장의 불허한다는 말도 듯지안코 강경히 요구를 주장하자 드듸어 재판장은 정태옥의 퇴장을 명한후 유축운의 심리로 드러가랴고 하엿스나 유축운 한효삼(韓孝三)(二三)등이 련겁허 일어나서 전긔 정태옥의 퇴장명령을 취소하라고 한참동안 승강을 계속하다가 재판장의 불청으로 심리가 계속되엿다 피고 유축운은 소화칠년팔월사일부터 십일동안에 강목구(姜穆求)를 맛나서 함주(咸州)평야에혁명적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함주군에 공청반(共靑班)과 격문을 산포한사실과 함흥(咸興)에서 최경덕(崔璟德)(二三)과 악수하야 적색로동조합을조직한사실을 시인한다음 특히예심결정서에 나오는 정월(正月)『테ー제』는 사실은 그것이아니고 『모스코ー』『에잇듸끼』(國際共靑)에서발한 공개서한(公開書翰)이라는것을강조하엿다이리하야열한시반까지 유축운의 심리가끗난다음 한효삼(韓孝三)의 심리로들어갓다

【咸興支局電話】 사일 오전아홉시반부터 함흥지방법원에서 개정된 조선공산청년동맹(朝鮮共產靑年同盟)공판은 류축운(柳丑運)의 뒤를이어 동열한시 분에 한효삼(韓孝三)의 심리에 드러가 재판장으로부터 『일월테ー제』의 내용문제를 뭇자 피고는 그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며 방청석을 향하야 과격한 선동연설을 시작하엿다 이에 대하야 검사로부터 피고의 태도는 답변이 아니요답변을 리용하야 방청석에서 선동연설을 하는것이니 공판의공개금지를 하여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하엿다 그리하야 동열한시 사십오분 재판장은 배석판사와 합의한후 일단 휴정을 하엿다가 동 오후한시오분부터 검사의 요구대로 공개금지리에 다시 개정할것을 선언하엿다이에 대하야 피고일동은 공판의절대공개를 요구하며 법정안에서만세를 고창하고 약 십분간이나 소동을 하다가 결국 간수와정사복경관에게 진부되엿스나 그때문에 공판은 다시중단이되엿다 재판소측에서는 피고들이다시 소란을 이르키지 못하도록 하느라고 피고전부를 일단퇴정장에 류치한후 강창순(姜昌淳)부터 시작하야 한사람식 분리심리를 동 오후 두시부터개시하엿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七六五粍의 高氣壓은 北中國으로부터 朝鮮으로 擴大되고 北海道方面은 氣壓이낫다 昨日滿洲朝鮮에 一〇粍內外의降雨가 잇섯스나 오늘아츰은一般으로 日氣가조타 北鮮部地方의 氣溫은 昨朝보다 八度內外나려갓다

昨日最高 一六、九
同 最低 一三、三
今日正午 一六、六

延專主催‧第六回全朝鮮 中等校庭球開幕

延禧專門學校主催의 第六回全朝鮮中等學校庭球大會第一日은 豫定과가티 四日午後二時부터 새맑은가을하날아래 郊外延專코ー트에서열리엇다 定刻이되자 參加한徽文、官立信聖、培材、普成、徽新、東星、第二高普、協實、中央、中東等十個校選手七十餘健兒들이一齊히入場한後 會長을代理하야 本部委員李源喆氏의開會辭가잇슨後 昨年度優勝校 中東學校軍의優勝盃와 優勝旗返還이잇섯고 出場選手一同을代表하야 信聖學校 朴春福君의宣誓文朗讀이끗난다음 뒤니어 ABC세코ー트에나노아 培材對中東、徽新對徽文、中央對東星戰으로부터競技는開幕되엿다(戰績은 朝刊에)

럭비ー改正規則實施

西部럭비ー協會朝鮮支部에서는 三日夜 競技規則硏究委員會를열어 審判及各種代表와 會合하야 今年度改正規則의 發表와 밋全般에亘한 競技規則의硏究를 한바 잇섯는데 新規則은 來七日의試合부터 實施할터이라한다

女子올림픽 五日부터擧行

朝新主催의第十三回全朝鮮女子올림픽大會는오는五日과 六日의兩日間에 行할터이라는데 各部의對陣은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하며 五日은午後一時半부터 第一高女코ー트에서 籠排球豫選을 擧行하고 六日에는 午前八時半부터京城運動場에서 陸上競技와 籠排球決勝戰을 行할터이라한다 그리고 卓球는 六日午前九時부터 東大門小學校에서 行하기로되엿다한다

◇籠球部【第一回戰】
A同德女高對第一高女
B第二高女對淑明女高
C女子師範對進明女高
D京城女高對龍谷高女
【準決勝戰】
A의勝者對B의勝者
C의勝者對D의勝者

◇排球部【第一回戰】
A淑明女高對進明女高
B龍谷高女對第二高女
C第一高女對京城女高
D平壤女高對同德女高
【準決勝戰】
A의勝者對B의勝者
C의勝者對D의勝者

◇卓球部【第一回戰】
A第一高女對京城女高
B女子師範對同德女高
C女子實業對淑明女高
D女子商業對第二高女
【準決勝戰】
A의勝者對B의勝者
C의勝者對D의勝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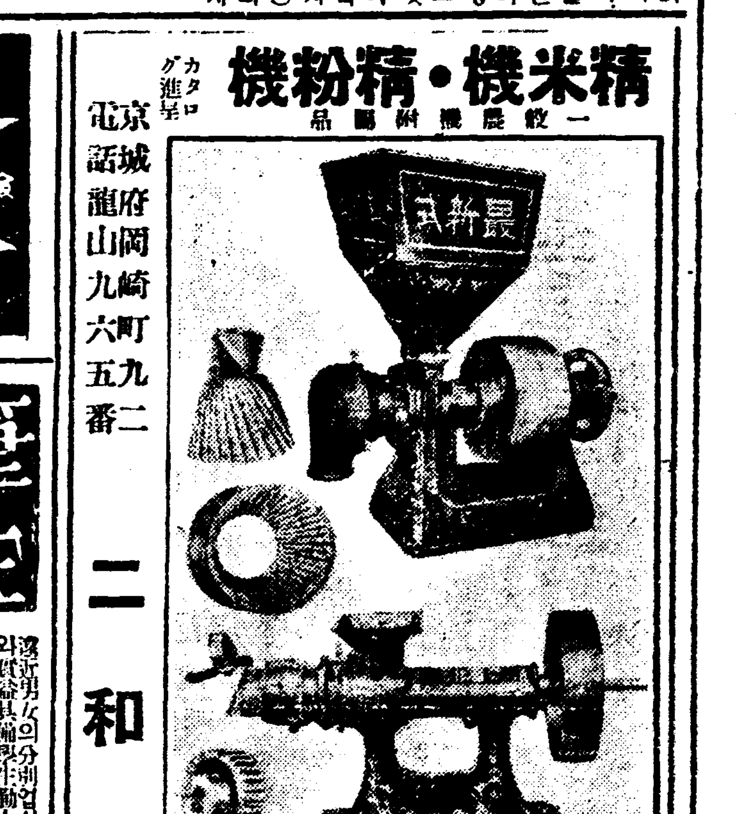
◇陸上部=京城女高普、同德女高普、進明女高普、第一高女、女子實業、第二女高 龍谷女高

世界野球二日 타이거스雪辱 八A對三캅스敗

【데트로이드一日發電通】 世界野球爭覇戰第二日의『데트로이드‧타이거스』對『쉬카고‧캅스』와의第二回戰은『캅스』軍一勝의 뒤를니어 三日午前十時三十七分부터 當地『네ー뷔‧필ー드』에서『캅스』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八A對三으로『타이거스』軍雪辱하엿다

캅 000102000ー3
타 40030001Aー8

精米機‧精粉機 一般農機附屬品 カタログ進呈
京城府岡崎町九二 電話龍山九六五番 二和商會



洪錫厚診察所眼鏡部 檢眼 無料 主任 書東學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 電光二三二八

自轉車材料原價奉仕 信用問屋 特典付 感謝進呈
最高級新製日英保險付 十二圓 實用優美塗替德用車 七圓 仕上吟味堅牢中古車 四圓 出物太リヤカー 五圓
地方諸官廳納品 外國輪出 帝都名實隨一のエスニム號製造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の六大通 直賣元祖 自轉車製作 日英商店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〇四一七番

熱讚! 歡呼! 외로운길손 (四〇六二八) 蔡奎燁 Columbia

링게르 네오지치리ン 링겔
可恐한害毒을流布식히는淋疾。消渴의療法으로서玆의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奬의最新藥ネオヂリン의服用을推奬한다。本劑는當所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서殺菌力이가장强하고急性慢性淋疾은勿論、膿、膿瘍도解消된다 (療法書進呈)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洲川、電淡河三番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米 朝報案內 低利即時立替 京城鍾路五ノ三一一番地
恩給 京城師範學校北川邊 電停所

筆生 京城中等公民學校 生徒募集
○專修科、講習科、後期新學期開始○願書締切十月五日
○京城府太平通大漢門橫(電本四、七六一番)
遠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無料로되는昧와實益具備學生勤人婦女子最之適切입니다 詳細通知한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新學期開始 十月十日 ◆中學第一部(各中等學校入學) ◆中等科第二部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二一六〇)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十月十日◎學期裏二錢切手
第四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二一六〇番)

時計完全修理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京城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新專屬歌手 韓晶玉孃出世作 斯界의第一人者 文湖月氏作 力作

꿈길 오ー케ー레코ー드
OKEH 레코ー드番號 一八〇八

訃告

李晟國氏大人珪鈺氏以宿患今月一日午後十時(陰九月四日)開豊郡光德面黃江里別邸別世玆以訃告

發靷月日 昭和十年陰九月八日 午前八時(陽十月五日)

永訣式場 開豊郡光德面黃江里別莊

葬地 開豊郡南面十鷹里先瑩

昭和十年陽十月一日

子 晟國 子 昌國 子 興國 孫 英揆 孫 鳳燦 從 珪燦 從 珪弘 任 時國 任 忠國 親族代表 李永實 友人代表 金光顯 黃明燮 吳正榮 金龜堵 朴允深 金增巖 崔鐵 護喪

十月二日부터特別公開 新版人生의岐路 大都映畫特作 松村光夫‧飯田映二‧五味國男‧佐佐木久子 主演 原作脚色…照山濶一 監督…吉村操

タブウ F・W・무르나우의最後에남긴名畫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都映畫特作連續時代劇 松山宗三郞…主演映畫 燃ゆる叫び 久松三郎 雲井三郎 浮田勝三郎 三島陽子 共演

櫻井町 本局 大正館

大衆料金椅子席二十五錢、階上席十五錢 特選映畫一時上映

每日三回興行 十月四日부터三日間特別興行

現代劇 涙の世渡り 全十卷 監督 中野英治 原作 東方城泰長氏 主演

暴君네로ー 全十卷 宗敎劇 파라마운트社超特作映畫 名花 클로데트‧콜벨 名優 푸레데릭‧마취 主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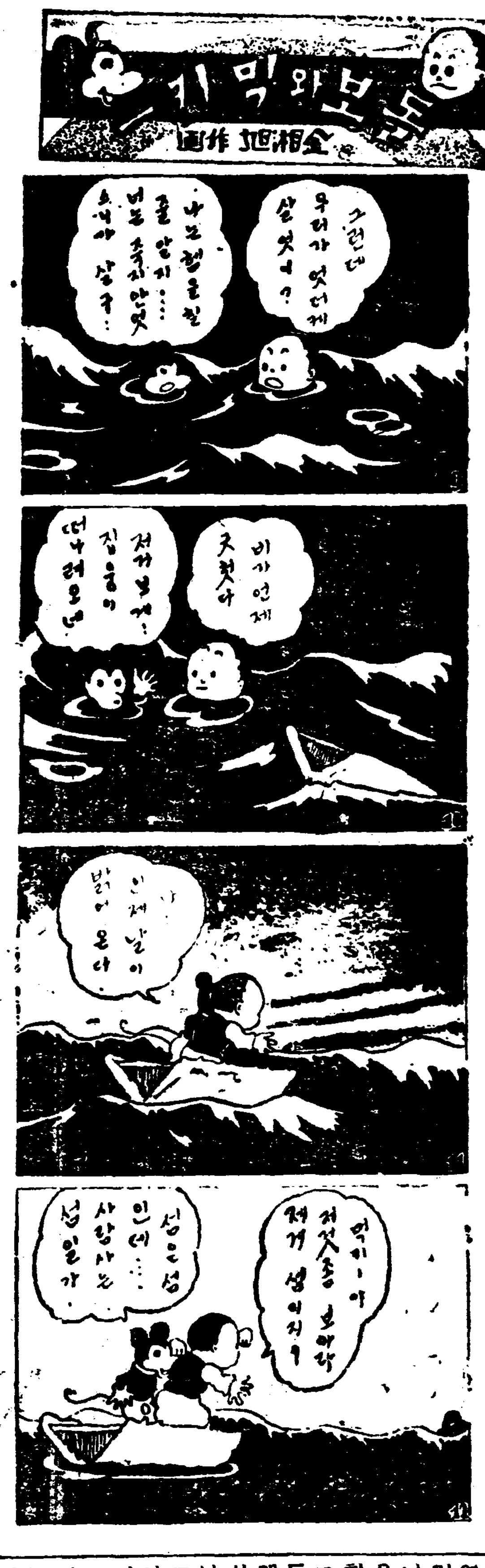
鍾路四丁目 電光二一五五番 第一劇場

九月二十九日부터 天下人氣를獨占한二大雄篇一時上映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WS반다이크氏大作品! 類猿人타ー산 飛擲王손니와이스미유라氏主演 類猿人타ー산의復讐 모린오사리반孃 助演

古今獨步! 天下人氣를獨占하여 映畫史上特記할偉蹟을남긴二大雄篇을 一時上映! 이絶好한時期를잃지마시라

帝國敎育映畫研究所製作 全發聲 東鄕元帥 海軍省後援 監修 海軍中佐善田喜次郞 豫告 十月三日부터 朝鮮劇界猛虎軍의活動狂劇專門 勇猛騎士 梨園의孔雀 劇團新派狂

實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버려서는 못쓸 물고기의 내장

남자에게는 이리、녀자에게는 알

모다 훌륭한「홀몬」약제

홀몬劑로서

암수생선에는 알이 든 대신으로 숫생선에는 이리가 잇습니다 알은 꼬들꼬들하고 또 감칠맛이 잇지만은 이리는 흐치흐치하야 보기부터 재미적고 또 흐물흐물하야 먹기에도 맛드지 안습니다 그러나 녯사람의 말슴을 드르오면 알보담도 이리가 몸에 유익하답니다 녯사람의 말슴이라고 혹시나 업신녀기는 분도 잇슬지 모르오나 현대과학적으로도 그것은 명확히증명되는 일이랍니다 공연히 그 조흔 것을 내버리시지 말고 알이나 마찬가지로잡수어 두십시요 더구나 애기네라든지 로인네라든지에게는 만히 잡숫도록 해두십시요.

이리란 암놈이 나놓은 알에다가 생명을 부치어 주는 숫놈의 정자올시다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중에 특별한 성분이 잇슬 시것은 올흔입니다 과연 이리에는「알기닌산」이 아조 만히 들어 잇습니다. 이「알기닌산」은 세포(細胞)를조직하는데 잇서서 절대로 필요한 물건이만치 영양상 특히

귀중한가치를

가지고 잇는 것이라 사내들에게 특별히 조흐며 장정들에게도 해로울 것은 결코 아니지만 새세포조직의 필요함이라 아기네와 로인네에게 특별히 좃습니다 요사이 불로장생을 한다느니 경소년한다느니 떠들어가며 홀몬제라고 약광고를 내는 닐이 종종히 잇는바 그 원료의 대부분은 결국

생선의 이리에

지나지 못 합니다 그러나 아모래도 약을 맨들자니 말리고 무히고하야 효력을 만히 감하가지지 안할수 업습니다 생선의 이리가 아희네에게도 낫븐것은 결코 아니 지만 숫놈이 게 될것시이 아니겟습니가? 이왕지사 이리를 먹는 바에야 깨끗하고 생생한 생선의 이리를 그대로 먹는 것이 조치안습니까?

×

그런데 이리속에 만히 들어잇다는「알기닌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궁하실 분도업지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분네를 위하야「알기닌산」의 이약이를 잠시간 하야두겟습니다

「알기닌산」은

「아미노산」의일종이요「아미노산」은 담백질의 주요성분입니다. 「아미노산」이라고 영양상 다 조흔 것도아니어서 필요한 도 잇고 불필요한것도 잇거니와 그중에도「아지노모도」라는 일홈으로 팔고 잇는「굴타민」이라든지 그역시 양념의 재료로 써서 훌륭히「히스티딘」이라든지 또「알기닌」이라든지는모다 필요한 종류에 속하는것입니다. 그런데「알기닌산」을 만히 포함하고 잇는 물로는 첫재가

생선의이리요

그다음이 삼씨(麻實) 알부(…료) 수소고기들입니다 수소고기는 백분의 칠밧게 못되니까 백분의 오십이 넘는 생선의 이리와 비교해서 말 할수것이안되지만은 그래도 닭은 고기보담은 수소고기에 제일 만흔 것이 사실입니다. 생선의 이리중에서도 연어의 이리에 제일만습니다. 거긔는「알기닌산」벼분의 팔십칠이나 됩니다.

×

그러나 아모리 조흔 것이라도 상하여서는 도리어 리롭지 못합니다. 더구나 상한 이리에는 중독이 되기가 아조 쉬운 터로 그 점을 잘 주의하서야 합니다.

短篇小說

女子의마음 (13)

張德祚 作
安夕影 畵

요사히 사내가 밤해 차저댕기다는 어떤 주모(酒母)의 집근처를 어저께밤도 향화는 정신업시 헤메여 댕기엇다.

옥이를 보낸후의 홍은 처음에는 마음의고뇌에서 해방된듯한 표정으로 안방 아랫목에 방구러저 잇드니 몇칠되지못할때부터 배전하여 오입은심하여젓다 사내가 그게집의 일곱살난 아들을 안고댕기며 과자와 작난감을 사주는것을 목격하엿다는 쌍동네의 보고는 향화로하여금 옥이때이상의 심한 의혹의 구렁으로 밀어 넣는듯하엿다.

「벌서자식을 바라는구나」하고 향화는 제일무서워하고잇든 사실이 눈압헤 낫타난것을 느끼엇다.

「자식이 그립거든 계집애를엇어야지 벌서 육칠년짜나 숨은 갈보노릇을 한다는년이 자식을 또 낫상 십우」

향화는 분한듯이 사내의 압에 대어들엇스나 홍은 빙긋이 웃을뿐이엇다.

늣게까지 안도라오는 사내를기다리는 향화의 귀에는 남자갓은 소리를 내이며웃든 계집의 모양과 음란한 눈짓을 던지는 하얀얼골이 낫아나곤 하엿다. 그는 밤바람에 불니우면서쌍동네가 갈으켜주든 그집근처를언제까지든지 오르락 나리락하엿다. 숨을 죽이고 기를 기우리기도 하고 밧삭다아서서 드려다보기도하나 불빗이 훤히빗치는 입각대문속에서는 지금 어떠한일이 일어나고잇는지 알길이 업섯다. 그러나 이가튼 밤고생은 그의 약한몸속에서 겨우 움지기고잇는 정력조차 빼앗아가려하엿다

…월우고 밤잣든것이다

「절때위 귀신가튼것이 무슨 밥아이야」홍이 수심에지쳐 수척해질수록 향화는 저기를 떠나가는 사내의 자다란 행실(行實)에 접촉하는것이 무서웟다. 어떤때는 한강 푸른물에 몸을 면저버리고 실흔마음 절망적으로 감정이 격앙하는때도 잇스나 삼사년사이에 조흔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지못하고 가는동이솔허다

「옥긴 해욕어 날마로칠 바나님 비웃으라구나 혹어」

향화는 곳 새로운 희망을가지고 마음을 가다드멋다.

「서방님을 혼자 차지할여거든 당신몸부터 고처야지요」언제인가 쌍동네가 이러케 말하고곤울재 향화도 제일 그말이 미덥지스러웟스나 이제는 그런게 할 비용을 판출해내일 도리조차어섯다 어느날 사내가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먹을때

「나도 젊엇슬적에는 이러케 꼬챙이는 아니엇건만」하고 아양을부리듯이 다아안즈며 아주도 사진가튼것에 남아잇든 그때모양을 생각하엿다.

사내도 계집을 끌어올려 손목을재여보기도하며 과연 아름답든 계집의 모양을눈압헤 그리살당히 술의운이도라 사내는그 겨운눈을 빗내이며 이러케말하엿다

처음으로 홍을 맛난든 옛날의이약이가정미(情味)에주린두사람의 사이에 그리웁게 되푸리 되엿다

「그것이 내가 바로 열아홉나든 해엿스니 향화는 아마 스물인가 세인가 어떤동무하고 백주에신정을 지내가는데 어떤 유곽 이층에서 색시하나가 남치마에 노랑저고리를입고 이러 어깨 난간에 기대섯다가 방긋 우서보이는데 그만 숨이 확막히든군 도 세상에 저럿케 아름다운사람 잇나 하고그때 어린마음에도 아주 홀딱 반해 버렷단말야 우리향화도 그럿케 고흔시절이잇섯거든」하엿다.

저녁 숫갈을 놋차 바로 뛰여나간 사내는 그날도 자정이넘을때까지 돌아오지안엇스나 향화는 온순히 기다리고 잇섯다 그는 어느게집의방에 버서걸어두엇든지도 몰으는 국인 두루맥이를바다걸고 양말을 벗긴후 사내를 안듯이하여 눕혓다. 그날밤 향화는 남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남자의 머리마테 안잣스나노리에 피곤한 사내는 거들떠보지도 안앗다. 새벽이 되엿슬때 한기가나고 머리가 끌튼니 그때부터 향화는 전체도음을 이상한병에 걸니고말앗다.

출입을 할때마다 냉하기쉬운허리를 융과 털로짠띄로 여러겹을 너가진 주의를 다하엿건만 의사의 말노도 여간한 치료로는 나

四日(金曜)

◇午後六時 —[illegible]
一、[illegible](…作) 마음의 [illegible] 全一景 二、[illegible]
[illegible] 作 [illegible] 指揮
◇同六時二五分 [illegible] 이야기」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始政二十五周年記念講演(第五日) [illegible]
—洋樂의밤—
◇同八時(東)피아노獨奏 一、幻想曲 五長調 作品一〇九番의三〇…베—토벤作曲 第一樂章 마빠체 마·논·트롬포·아다지오·에스프레시보 第二樂章 [illegible] [illegible]·에·에스프레시보 五베리에손 二、[illegible] ……[illegible]作曲 荒木 和子
◇同八時二〇分 [illegible] 一、歌劇「도스카」中에서 [illegible] 和…푸치니作曲 二、춤…奧시니作曲 三、도라오라、소렌토로…쿠르티스作曲 四、바다로오라…베듸—네作曲 五、歌劇「아를르의女子」中에서…치레아作曲페데리리코의嘆息 金永吉
◇同八時五〇分 [illegible] 演奏)
◇同九時〇〇分 [illegible] 피아노伴奏 스미스

五日(土曜)

◇午前一時二〇分(東)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그戰
◇午後六時 洋樂 一、빠이올린 [illegible] 三、피아노트리오……[illegible] 四、[illegible]
◇同六時二五分 記念講演 第二部 第一高普[illegible] 天主敎百五十周年[illegible]하야 天主敎神父 吳 基 元
◇同七時三〇分 始政二十五周年記念講演 (第六日) 國民協會[illegible]事長 金 明 濬
◇同八時 流行歌 一、合唱 [illegible] 二、獨唱 [illegible]里의종소리 …成德民 三、獨唱 님이그리워…金鮮英 四、獨唱 [illegible]夢…金仙草 五、獨唱 [illegible] 六、獨唱 모래城차노코…成德民 七、合唱 서울[illegible] 作家DK管絃團
◇同八時三〇分 古談 [illegible]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illegible] 二、唱劇調 [illegible]

六日(日曜)

◇午前一時二〇分(東)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그 —明治神宮[illegible]—
◇午後六時 童話 崔 泳 柱
◇同六時二〇分 兒童[illegible]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 [illegible]한어머니 培花女高 金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始政二十五周年記念講演 (第七日) 京城府會議員 曹 秉 相 仁川府會議員 金 允 福
◇同八時 (大)室內樂(빠이올린·비올라二重奏) 1、세레나—드作品四十五……크렝겔作曲 一、안단테·콘·모로 二、룰로비비체 三、렌토·마·논·트롭프 四、알레그렛토·템포·듸·메누엣트 2、二重奏曲 B플랏트·長調……베—토—벤作曲 一、알레그로·소스테누—토 二、아리아·콘·로리아치오니
◇同八時三〇分 [illegible]
◇同九時一〇分 [illegible] 一、秋[illegible] 二、[illegible] 三、[illegible]

曆

十月五日(土)
舊九月[illegible]
甲寅·水·胃·執
●寒露九日(舊九月十一日)
●霜降廿四日(舊九月廿七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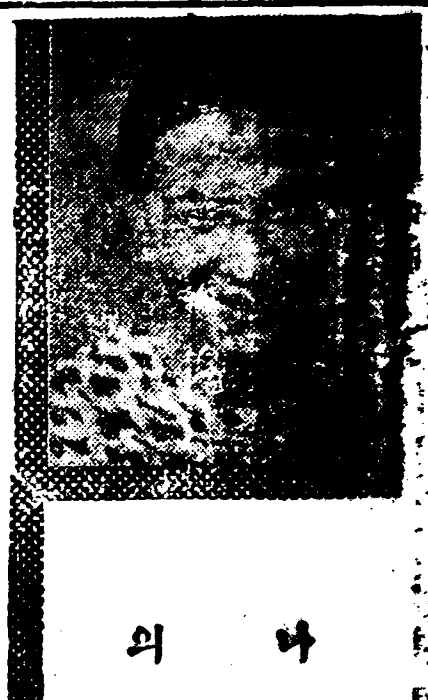
私 나는
断然!マスターバニシングが好き
私をこんなに若々しくはりきった肌にして呉れるんですも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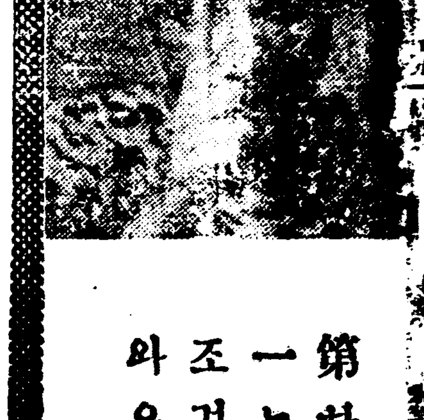
秋 가을
の日は焦たらなかく直りま
せんからあの爽かな肌さわり
清新な香りのマスターバニシング
をお忘れにならぬ様

夜つけて朝の若肌!
マスタークリーム

マスターバニシング
마스타—바니싱크림

나의





第一하는 조것은 와

あの爽やかな
マスター
バニシング

學藝

朝鮮現代詩의研究

＝그 批評以前의 享受過程에서＝ (一)

李歇河

온 고움이 맺혀만 한 蘊藏한가지가 소사난다 하기로 그래도 나는 고하 아니하련다.

나는 나의 나하와 변과 바람에도 疲勞하다.

이제 太陽을 금시 일허버린다 하기로 그래도 그러 놀라울리 업다.

실상 나는 또하나 다른 太陽으로 살엇다.

사랑을 위하얀 입맛도 일는다.

외로운 사슴처럼 벙어리되어 山길에 슬지라도—

오오 나의 幸福은 나와 뫕母마리아!

이러한 한篇의詩.또

山넘어 또山넘어,넘을 꼭뫼올과저 넘은 山이 百이언만 넘을山이 千가萬가 두어라 億이요 兆라도 넘어볼까하노라

이러한 한篇의 時調를 넘을때 우리는 理由업시 기쁨을 느낀다. 그러고

펄펄날리든 송이송이가는봄

또는

아아 新綠이을 알알히 비추어보며

新綠千年의 푸른하늘을 꿈꾸노니

이러한 한字숨에도 우리는 말할수업는기쁨을 느낀다。이것이 곳詩요 여긔詩가잇는것이다。우리는 이기쁨이 어데서오는가를 찾고저하나 그길이 아득하고 이기쁨이 엇더한것인가를 말하고저하나 우리의말이 따르지아니하는것을안다。또或 그길이 **宛然**하고 우리의말이우리뜻을 따른다고할지라도 우리가 詩를떠나 詩를 말하고저할때 우리는 結局 實驗室에들어앉저 人造人間을 만들려고하는 科學者의 서룸을것게 되지아니하는가한다。科學者는 우리가 엇던化學成分으로되고 또어떤化學量의 結合으로된것을 仔細히안다 그러나 그一定한 成分과 分量을 按排하고 化合식힐때 거긔한肉塊는 나타날지언정 魂잇는사람은 나타나지아니한다

詩가 이미 이와가티 捕捉하기어렵고 말하기어려운以上『조흔詩는 엇더한것이며 조치못한詩는 엇더한것이냐』한것은 結局 明確한解答을 갓지못할 設問이라고하여도 決코 過言이아니겟다。그뿐아니라 이設問가운데는 詩라는未知數以外에 또價値라는 無限한延長을 가진問題가 包含되여 잇기때문에 一層더困難한問題가 되는것이다。여긔도한 우리를가르치고 詩의善惡을 判斷하는基準을 **提供**하려고하는사람이 업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서 엇는것 不幸히 滿足할만한것이 되 [illegible] 는것은 또 우리의 누구 [illegible] 事實이다。[illegible]에關하야 도움을엇고저하야 批評史를 두저본다할지라도 우리가 거긔發見하는것은 다만 것잡을수업는 思潮의 變遷과 理論의代置 또는 交錯뿐이요 우리가 거긔準據하야 安心과 確信을 가지고 詩의善惡을 判斷할수잇는 一定한 基準은 차자볼수가 업다。멀리 過去의 批評史를 商考할것업시 갓가히 우리 眼前에 展開되는 오늘의 詩壇을 보라。或은 制限과 節度를 尊重하는 人本主義의 批評論 或은 階級意識의把握을 强調하는 集團主義의批評論 或은 科學의確實性과 새로운進步를 背景으로한 心理主義의 批評論 等。하나가 그의尊嚴한 倫理的理想으로 우리를 反省하게한다면 하나는 그의沈着과 確實性으로 우리를 說服식히고 또하나는 그의情熱과 그의約束하는 多望한 **將來**로 우리를 魅了한다。이리하야 世界의 詩壇으로서도 大槪오늘날가티 活潑하고 多彩하고 또特히 批評의 基準問題에 關하야 오날가티 많은關心을 가지고 論究되엿슬은 아마批評史上에도 업슬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雜然하고 勸說하는대로 따라 그들의 世界에들어가 그들의理論을 承認하고 그들의觀點에서 詩를보고저할때 우리는 거긔만흔歪曲과 만흔치우침이잇는것을 看過할수업다。그러고또 假使여긔 한 完全한 批評理論이 잇고 또 우리가 다가티 그理論에 立脚하야 詩를본다할지라도 實地 한篇의詩를 압헤노코 그高下를 判斷하고저할때우리의意見은 決코 容易히 一致되는것이아니다。』

作家隨筆

地峽의가을 (一)

李孝石

一、展覽會

마을은 사흘동안 잔채집 마당가티 웅성거렷다。삽시간에모여든 數萬의 인종으로 말미암아 마을의氣溫은 확실히 노파진것갓다。要所 要所에는 紅白의門이서고 초롱이 꼿피고 商街에는 연거퍼장이 서고 物價가騰騰하얏다。會場인 校庭에는 多彩의萬國旗가 무지개를니루웟고 陳列場은 新婦가티 사치하게치장하얏다。—展覽式가 때아닌 풍성한 季節을 가저온것이다。

『싸홈』을 目標로하는 作品이 달이걸녀 製作됨과 마찬가지로 敎育展覽會에 出品되는 作品도 달이걸녀 誕生된은 출님업다。郡下 四近邑의 全敎育機關의各分野를 網羅한마큼 도리혀 努力은 一層多岐的이요 全幅的이라고할까。사흘동안 展覽시키는 作品과 그準備에 三旬或은三三朔이 걸렷슬는지도 모른다。三日과三朔! 이對照的數字에 神秘와 價値가 잇다。三日의 結果보다도 三朔의 過程이 더貴重함을 알어야 한다。사흘동안 보이고는 다음날로 即時 치우고 헐어버릴것을 三朔을 들며가며 공들여싸어올것이 決코兒孩들의소꿉질과도가튼 努力의浪費가 아닌秘密이 實로 이곳에 잇는것이다。

初等敎育을밧는 幼齡으로부터 中等敎育을밧는 健齡에니르기까지 그들의 조그만손에서 우러나온 各作品에는 智慧와 才華가 빗난다。글시의字畫은 대人납가티곳고 그림의 맛쉬는 바다가티 굿건하다。地圖를讀本가티 그리고 汽車와 城門의모습을 如實히뜨고 學校全景의 模型을 細密히縫製하얏다。人形을 만들고 바구니를걸고 집신을삼고『핸빽』을뜨고 人物畵를畵도코 國菊를그리고 造花를꾸미고 苦瓜를호박덩이만큼 크게각구웟고 鷄卵가튼 힌茄子를 심어서 어덧고 감자에 토마토를 接하야 同時에 두 가지의 열매를 맷게하얏다。그우에 敎室이떠나가라合唱하고 運動場이울니게體操하고 새記錄을엇도록 競技한다。—자다가는 어린兒童들이못맨드는것이엇고 못하는일이업다 이들후에 多幸이잇기를 바란다

李學範의 建築事務를擔任한 젊은 敎員은 運動場한복판에 나무를 세우고 비겨를매고 幕을둘너치고 큰額子를걸고—舞臺를맨들면서 몸시愉快하다。數千의兒童이올나와 노래하고 춤추고 演說하고 演劇하야 各가지의 長技를 發揮할 舞臺임을 생각하고 못을훔녀바고잇노라니 제절로 회파람이 입술새여나왓다。行進曲을 불면서 문득 귀를기우리니 못을박고잇는것은 그홉자가아니오 實로校庭의 구석구석에서 울니고잇슴을 새삼스럽게 알앗다。못박는소리。가을하늘에 노피 反響하는 朗朗한소리! 그것은 확실히 創造의소리임을 깨닷고 그는 瞬間全身에感激의 소름이 쭉돗는것을늣겻다。새삼스런감동에 몸이 흘가리 단다。별안간 敎室에서는 少女들의 合唱이 날카랍게 찌저젓다。깃버야할 노래 소리가 웬일인지 슬로게 울린다。졸졸이져 나오는『멜로듸』가 가삼속에저저들어 그는 모르는결에 눈물이쭉소삿다。創造의感激의탓임을깨닷고 敎師는여전히 못을박는다……。

—이것은 반다시 나의幻想만이아닐것을 밋는다。創造는깃봄이오 가을은創造의時節이다。못박는소리와 合唱소리가 가장明朗하게울린은 가을하늘이까닭이다。아해들이 손을꼽아가며 展覽會의날을기다리고 諸兄父兄들이 子弟의才操를보라고 몃백리산협에서모여든것도 當然하다고할가。

그러나 나는 어貴重한展覽會를 볼필요도하지안코 모여드는사람과는逆으로 도리혀 山속을차젓다。地峽의가을을 實주랴고향이엇다。가을은 實로 到處가아름답다。바다도 마을도 山峽도。

考證行脚 (6)

海西의名勝、白川

方鍾鉉

꿋홍로 白川이라는 두漢字를 이地名으로 생각하지안코 읽을라면 누구나 백천이라고하야 다 틀림업시 白字를 백이라고할것이다 그러나 이地名을 부를때에는 누구나 다 배천이라고부르고

백천이라고 하지안는것이고 이地名을 생각하는나마에 附加하야 생각하지안흘수업는 문제인가한다(勿論 近日에 백천온천이라고하는사람이 잇는것도 드롭게 보는것이지만)그러면 먼저 이地名이 漢字音을 主로한것인가 或은 俗音이 傳해나려온것을 漢字로 近似하게 表音한것인가? 이와가튼 疑問을 우선가지게 되는것이며 또 漢字音이 即白字音이 어떤 特定한 境遇에는 그音을 變하는것인가? 그것은 白字를 배로發音하야온것이 前부터 잇서왓슴으로 배音을 表示하기爲하야는 白字를 使用할수잇스므로써이다

白배馬 老乞大諺解下 P.8
白배羅 老乞大諺解下 P.47
白배糖 華音啓蒙諺解上 P.9
明白배 華音啓蒙諺解下 P.39
白배日 華語類抄 P.3
白배王 華語類抄 P.41

이밧게 우리가 恒用하는 말가운데에도 쓰기는 白菜라고 쓰고 이것을 배채라고 말하는것은 우리가 늘 지내보고잇는事實이다。그러면 白川을 배천 **白菜**를 배채라고 하는것은 꼭가튼 表現으로서 어마도 이 白字를 배하고 表音한데 不適한듯하다 다만 한가지 더附加하는것은 白魚를 우리의 普便會話에서는 뱅어라고 말하나니 이것도 亦是 그例에 가티 屬함만한 表音이 아닌가한다 얼는보면 이때에 白字는 뱅으로 그音이 달리되는듯하나 그것은 아래字인 魚字의音에 依하야 생기는것이고 白字는 亦是 배로 나는것이라고보는것이 올흘것이다 魚字를 부칠때에 鱸魚를 농어 鯉魚를 잉어、鮒魚를 붕어 秀魚를 숭어 이밧게 이와가튼 고기이름이 만히 잇나니 이것은 이魚字의音이 單純한어音이 아니고 古書에는 어로 表示된그런音이 모든 이와가튼 現象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겟다 여기서 마일 魚字가 古書에 그러한音이엇다고하면 白字가백이라고하여도 그發音은 自然히 **뱅어**로 될수잇는音이라고하겟스나 다른여러例를보아서 이 白字도 배로 보는것이 正常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이다 白川을 배천이라고하던지 백천이라고부르던지 그어느것이 올흐며 또 꼭 어떠케 불러야만 된다는 意見을 主張하는것이 아니고 백천을 어찌하야 至今까지 배천이라고 하는가하는 그러한 疑心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여기서 白字를 배音으로 表示하는例도잇고 또 使用할수도 잇다는것을 白川地名을 論하고잇는 이자리니만큼 附加하지 안흘수업슴을 말해두는것이다。

期待되는 朝鮮

東西諸家誠忠一元論 ②

安在鴻

×

『푸ㅡ쉬킨』은 그歷史的 地位에서 近世러시아文學의 아버로 된者이다 그는 現下스탈린等에依하야 讚揚되는『차ㅡ』로러시아의 敎法의미터 그百年忌를 **盛**大하게 紀念할 準備中에잇다 그는新世百年을 隔하여잇는 十九世紀 初期의人物이엇나니 時代의喬見인點이 다른 만흔 先驅者와다를것이업시 일속 時代를 껑충뛰어넘어 二十世紀의『우라지밀』等이라도할소리를 지려하고가는 神奇的行在者는 아니엿섯다 그는詩歌의 價値를 가장 高尙하게 생각하는 純藝術派의 詩人이라고한다 그는 當時의 社會民意의 忠實한 表白者로서 社會的意味로 서의『自由』를 억세게 要求하엿섯다

그러나 이『푸ㅡ쉬킨』이 푸ㅡ쉬킨으로서러시아文學史에光彩나는것은 그가러시아國民文學을 創始하고 또確立시킨 開拓者로서의 歷史的 功勞에 [illegible]이오 그러면 [illegible] **佛**蘭西의 十八世紀 民主運動에서 培養된바이며 그것이 또 民衆的으로 普及되고 發達成長하게 되든 歷史的變遷은 全혀 一八一二年으로써『러시아』征服의 길에 달려들엇든 大『나폴레옹』의 戰火속에『러』國民으로서의愛國心의鼓舞에 注力함을 契機에 진(眞)바마로것이다 이와가티『푸ㅡ쉬킨』이國民文學의 基礎를 세운歷史的作業은 옛고평이의 推移와 困難을 지나고 다시 大一番의 飜覆을 겪근『러시아』『오늘날이지만그 그功勞와 餘烈은 現代의『차베트』의사람들로 그巨大한百年祭를 準備하게되는것이다。

×

무릇 仁人志士의 뜨거운血性이 不合理를 미워하는 날카려운 良心으로뛰고、衆生을 度濟라도하려는 救國濟民의 民衆의 **念**[illegible] 울리처려는 [illegible] 에서 그生命이 悲痛하게 울부짓는 바에、[illegible] 제각각 [illegible] 史上에 나타나는것이니 이것이 千數百年前에 잇서서는 佛[illegible]의 侵略에서 自我네의 大衆을 防禦하는 [illegible]으로도 되고 [illegible] 千[illegible]의 때문에 [illegible] 도나라나고 흠은 海上千里를 아오는 [illegible]를 지처내어 水國秋光 殘月弓刀에서 千載에 그遺響이 울려지나가는 **水**源制度로도 될수잇스며 마히든 柳磻溪 李星湖 洪湛軒 朴燕岩 鄭[illegible] 申[illegible]

丁茶山 [illegible] 民正과 解放의、一序으로 各時代에 生動할수 잇슨것이니 무릇 그惑한비가 崇高한데 잇고 그念願이 民生의때문에 잇(與)고 그著述作爲가 一身의 私를 祭物로서 바친바 잇는곳에 今古가 막힘것이업고 甲乙이 岐異할바 아닌 것이니 저 二十世紀 最大의 先驅者라고하는 特定한某甲으로 [illegible]時代의 [illegible]에 잇서든들 [illegible] 一流人이되엇슬것이오 좋은계南海우에두엇드라도 또同一한 **逸**意의 어느 人物로 되엇슬 것이며 上述諸氏者로 二十世紀 獨特한 某甲의 나라에 몸을 두엇든들 역시 그에 相應한 現代式의 先驅者되기에 그血性의 最大限을 發揮하엿슬것이니 그러므로 [illegible] 一方인 것이다 吾人은 이에古今東西 [illegible] 와 我欲을 떠나는 [illegible] 仁人志士를 들어 誠忠一元論을 부르지즈려하는바이오 國民文學의創設者인『푸ㅡ쉬킨』의 百年祭를 차비차리는『차베ㅡ트러시아』와 사랑들은 그 百餘年前의 [illegible] 大地우의 生涯를 [illegible] 見識이 一片의 公式論의 [illegible] 的 [illegible] 眞[illegible]의 [illegible] 빗나는바 잇슴을 못내 [illegible]할바이다 무릇 그意圖가 **先**覺者를 [illegible]에 잇스면서 그 [illegible]은 [illegible]속에서만 [illegible]하고 잇는結果에 빠진다면 그 어찌 善의善인 者이랴? 이는 結局 [illegible]을 排斥하는 一說의 [illegible]者로 되고 말것이라 어데고 科學者的 眞面目을 어더볼수잇스랴?

近郊山岳史話

北岳山 (12)

北門의가을과古蹟

湖岩

朝鮮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것은 가을이다 어느 말근날나제 나는朴魯翁伯으로 더부러 白岳의 가을과 아울러 넷자취를 차저섯다 緩步로 三淸洞시내를 거스려 宗室 **碧溪守**의故墟를 지낼새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고 속삭이되이는 千古佳人 黃眞으로 하여금『靑山裏碧溪水』의 노래를지여 부르게하든 有名한 貴人이 아니엿는가 當時 매우 점잔는 어른이엇스나 黃眞에게는별수가 업섯다 하고 또한번 빙그레우섯다 우리는 가을비츨愛賞할새도 업시 바람과 기름지를 따라 행여나 古人의 꿈자취나마 어대 남아잇는가 해서雲龍亭의 東쪽松林을 호와白岳의 險峻한 기슭을 뮈스타스나 畢竟 아무것도 엇지못하고 말앗다 그시왓스니 **肅靖門**(北門)에서 여가자 하고 종수오라 간만에 北門을 차젓다 가을의 北門은 말고도 將朗히 고요하며 으속하고도 어느덧 쓸쓸한데 다람은업시『아치』만이 잇는 그門通 半쯤문어진 그城壁 그리고 雜樹에 點綴한 그樹木이들이 어찌면 이러케도 굴입에서 보든 古城門그대로일가 白岳의 가을빗과 넷자취를 象徵한것이 이北門임을 새삼스러이 느끼게 되엇다 宋人의 詩句에

終日토록 봄을 차저도 봄을보지 못하고 메루리를 끌고 오雲관을 두루 헤매다가돌아와偶然히 **梅花**나 무아래서 봄을 석구는 생으로 가차

을과 넷자취를 차저다니든 우리는 부질업시 뒤다다가 뜻박게 北門에서 그것을 어덧스니 이만하면 半日의 跋涉이 아주헛되임은 아니로구나 하고 北門의 가을幽趣를 朴翁伯에게 請하야 이渦하야 北門밧그로 달아나가 글이기로 하고 나는 너무나 목말근石澗水를 한움큼 움켜 마시고 돌아와보즉 발서쓰케취든 完成이되여잇다 이北門은 이 肅靖門이니 北門이라함은 本名稱이며 燕山朝初에 자을때부터 門樓는업시 지엇다한다 世宗大王의 셋재아드님으로 天下名筆의 稱號를듯든 安平大君은 이 北門밧게 **武夷精舍**라는 別莊을 두덧는바 거기 다날때는 아마도 이北門을 通行하엿스리라 그러나北門은 혼이 平時에 닷어두게된 關係上 世間에서는 一種迷信을 부처 말하기를 北門을 열어두면 서울 長安의婦女가 만히 淫奔하는風이 생김으로 이러케 언제나닷어둔다고。또或者는 말하기를正月대보름前에 안어녀가 北門에 세번만 갓다가오면 그해厄運이 살아진다고 이로보면 녯날에잇서서 北門은 비록通行하지 안헛스나 오히려往游하는 **士女**는 끈임업섯든 模樣이다 우리는이야기저니야기하면서 드되여 北門을넘어 城北洞으로向해 新勸洞을들리지도 못하고 바로萬海를山房에 차젓드니 萬海반가이마저주며 城北洞의 自然을 자랑하야말한다 이에三人이 한가지로 어느新衛圍에 드러가 입을 달궁하게하고。그곳으로부터 다시 한재를 넘어 천편宋洞에잇는 宋尤菴의 집터라고 稱하는 現宗一洞二番地의 中央佛專을바라보며『베스』길에까지이르러萬海의厚意를 입어 中國飮食으로 시장하든배를 불린후 서로 作別하고 우리들은 곳 돌아왓다 (끗)

理性의敗北 (三)

姜漢仁

意志가 二十世紀의 原理로써 登場하게되는同時에 從前의 思想과는 根本的으로 相剋性을가진 思潮가 顯著하게되엿스니 即今日의 獨裁主義全體主義 統制主義 思想의根本이『意志』이다。그래서 一部의知識階級이 이思潮에 加擔하게되것도 當然한일이다 그러나 一部의 知識階級은 이에正面的으로 反對하야 個人主義 民主主義 自由主義를 固執한것은 그知識人으로서 光輝잇든 理性의 城砦를 직키려함이엿다。

이와가티 現下에잇서서 知識階級의 **動向**은『콤뮤니즘』과『파시슴』의兩端振幅을가진 振子와가티 不安定이며 混亂狀態에 動搖하고잇슨 應히 말한바와가티 理性과意志의 相剋으로써 생기는 不安과 混亂이다。『안드레、벨쥬ㅡ』가『솔렌』과『볼렌』必然과 偶然이것을『時代의鬪爭、特히 傳統에의反抗』으로 부터이러난現象이라고 그『現代文學精神』가운데 말한것은 이를意味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이危機의 哲學的表現으로써現代『니ㅡ체』『베르그송』等의意志와 直觀의 哲學이 現代的關心이되는 一方『맑시슴』에 對한 懷疑는 一種의 傳統主義的思考를 發生케하엿다

이와가티 一方合理主義의 退潮와 함께『니ㅡ체』『베륵송』『클라이스케』等의 哲學이 一般智識階級을 捕捉하게되는것은 現代社會機構의 激烈한 **分解**와 對立으로 말미아마 自己保存이란 本能的意欲이 擴頭하까닭이다。

나는 이곳에『버ㅡ트렌드、럿셀』Bertrand Russell이『애드랜틱』誌一月號에掲載한所論을 引用하야 오늘날非合理主義의源流와 그基本性格을 敍述하겟다 哲學史上에 잇서서 合理主義에 對한 最初의反抗은 저ㅡ『칸트』로하여금『獨斷의迷夢』으로부터 覺醒케하엿다『고한바비드ㆍ휴ㅡㅁ』를의 이人性論으로부터 給作되엿다고하나 그는 차라리 懷疑하는 合理主義者이엇다。『칸트』에이르러 批判的으로發展하야 純粹理性과 實踐理性의 區別을갓게되것은 이『칸트』의 懷疑로부터 救出하기때문이엇다。그리하야 이『칸트』의 實踐理性은 後日의『피히테』哲學을 나케하엿스니『피히테』야말노 今日의 意志哲學의 先驅이엿다。『칸트』의『實踐理性의優越性』은『피히테』哲學의中心이되야 今日의 獨裁的政治의 根據는『피히테』의『意志』이며『自我』이다。

『피히테』를 實始하야『칼라일』『마치니』『니ㅡ체』『트라이츠케』『R・킵프링』『베륵송』『쳄버ㅡ레인』等一聯의『意志』『思想家가 登場하야 實地로 今日의 **文化**를 支配하여가게 되것은 勿論 現在社會生活에 그 客觀的理由가 存在한것이다。分裂과 對立이 甚한 이社會에 잇서서 客觀보다도 主觀 理解보다도 主張 秩序보다도 破壞 理性보다도 直觀 必然보다도 必要、模倣보다도 創造가主되나니 이와가튼 關性을『피히테』哲學가운데內包하얏다。

『피히테』의客觀世界는 意志의 所產이며 自我의表現이며 卽客觀化한 自我에不過하니 그哲學에잇서서는 創造的『我』以外에 實在한 客觀은업는것이다。그럼으로 그哲學的目的은 旣存한眞理의 發見이아니라 眞理의生產創造이엇다。『宇宙는내自身』이란 말은 그의哲學의 根本的表現이니『루이十四世가『國家는朕自身』이란말과 흡사한것이라는말이다。近代의 合理主義思想은 中世主義에 反對하야 이러난것이엿스니、最初의佛蘭西啓蒙主義들이 信仰의 自由經濟的自由、代議政治、**法律**의平等을부르지젓고 自然神敎運動이잇는同時에『뉴ㅡ톤』의 自然哲學이 輸入되여 모든價値의尺度를理性에두엇고 피히테와는正反對로 그들의게잇서서는 무엇보담 客觀性을 根本原理로하엿다。

新刊紹介

▲東京朝鮮民報 第十九號 東京市芝區濱松町四ノ二 東京朝鮮民報社發行 振替東京四六一二〇 定價五錢

▲호ㅡ무라인 秋季增刊號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玉置合名會社發行 定價五錢

▲近代人 十月號 大阪市南區西櫓町二 近代人社發行 振替大

秋燈讀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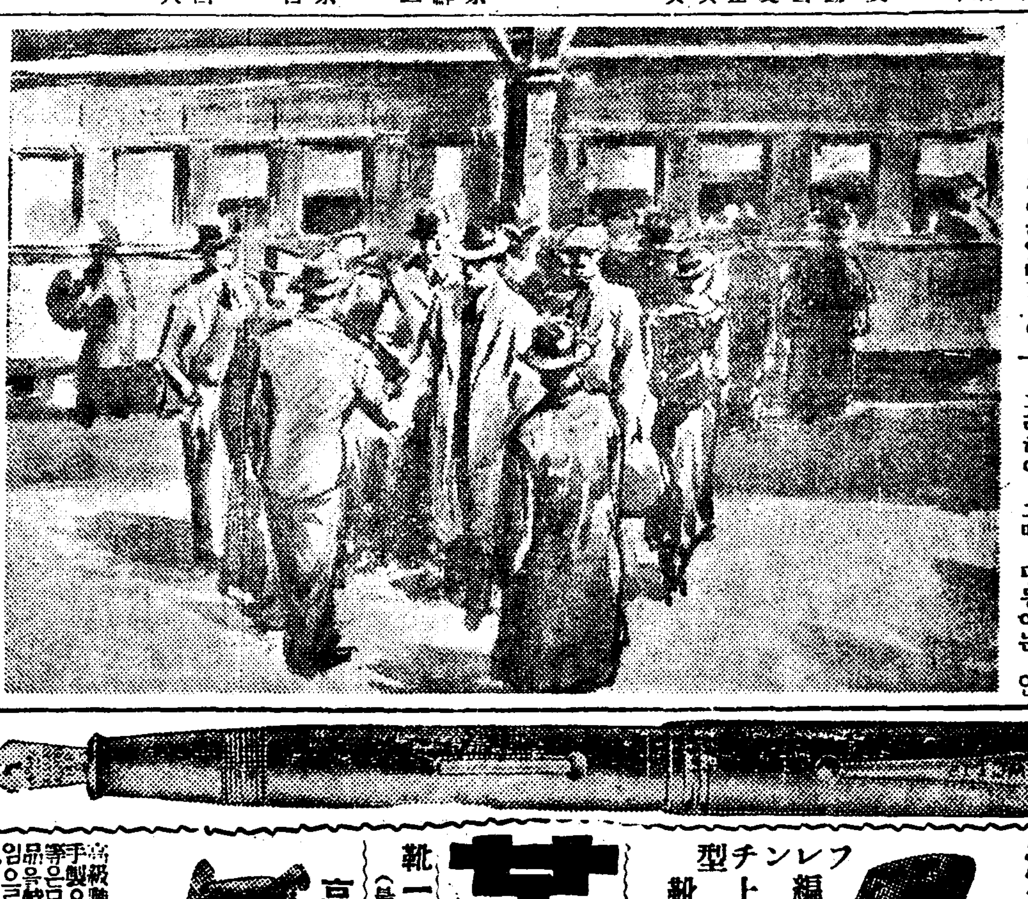
要所마다付箋

安含光

남달리 特殊한 讀書方法을 가지고 잇지는 못합니다마는、時事問題를 取扱한 比較的平易한 書籍과 根據깁흔 基本的書籍과의 사이에는 그方法(讀書)이 自然다르(異)게된다고 생각합니다。그는 우리가 읽어야만할書籍은 數업시만코 人生에 享有할수잇는 時間은 極히 짧은지라 讀書方法의 要諦는、어더케하면 限定된 時間을갓고 가장만흔 知的糧食을 收得할수잇겟느냐(?)함에잇는것이니、一律的으로 精讀만 할수도업는것이며 그러타고 理解도 못하면서 走馬燈가티 亂讀만 할수도업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이리하야 저는 좀 平易한 書冊은 亂讀하는 境遇가만흐며—(如何한 境遇에든지 拔讀은 조치못하다고 생각합니다)—基本的硏究書籍은 精讀하는 境遇가 만슴니다 그러면 어떠한 方法에 依하야 精讀을 하느냐? 첫재로 누구나다 實行하는바이겟지요 만흔 當該書冊의著述者가 引例한 參考書目까지라도 境遇에 따라서는 다시 開披하야 前後關係를 살펴보기로하며、多數로는 可及的『노ㅡ트記入』을 省略하고 그代身 必要個所에 따라 冊머리에다 簡單한 自己意見을 記入한 付箋을 貼付하고 노ㅡ트에는 다만 當該個所의 要旨와 頁數만 記入하야 後日의 參考에 供해둡니다。이는 全혀 睡眠時間의 短縮에서 讀書의 時間을 求하지안코는 달리 別道理가업는、내生活上境遇에서 緣由되는 時間節約法의 特殊한 表象이겟거니와、左右間 이리하야 내가읽는冊은 마치 官廳의 不備書類表示와가티도 付箋이 西五度式 貼付되여잇는것이 恒例이올시다。

推薦할 良書란 생각하는바에 따라서는 만키도 하고 적기도 하겟사오나、요즘 읽는中에잇는 마ㅡ츠아著、『獨占資本主義時代의 世界藝術發達史』를 하나 推薦해들가합니다。(九月十五日)



黑風 【46】

韓龍雲 作
金熊超 畵

▲時事 第十九號 定價十五錢 京城府仁寺洞一五二 發行所 振替京城九二四〇番 定價五錢

광 동(廣東) 2

광동 정거장의 출내드홈에 왕한을 마저주는 여러사람들은 왕한이와 궁은 악수를 하면서 왕한의 뒤를 따라 나리는 창순을 유심히 보앗다 창순은 그들의 유심히보는 시선을 피하랴고도 아니하얏지마는 정면으로 바드랴고도 아니하얏다 그리하야 창순은 천연한듯하얏지마는 처녀다운 부끄러움을 감추엇다 왕한은 창순을 그의집으로 돌녀보내고 자기는 동지들을 따라서 지정한 여관으로드러갓다

혁명당 본부의 수령은 황홍(黃興)이엇다 황홍은 장지동(張之洞)이가 경영하는 양호서원(兩湖書院)을 졸업한뒤에 민족주의를 선전하다가 호남(湖南)의당재상(唐才常)이가 의병을 이르키매 거기에 참예하얏다가 일이 실패하매 일본에 가서 동경사범학교를 다니면서 동경에 잇는 청국류학생들을 망라하야 거아단(拒俄團)이라는 단체를모아가지고 활동하다가 졸업하고 도라온후에 호남에다 학당(學堂)을 설립하고 청년을 가리치며 혁명사상을 고취하다가 마침내여러동지로 더부러 혁명단체를조직하고 그해 시험의 서태후만수성절(西太后萬壽聖節)에 폭동을 이르키랴하다가 장지동의 탐문한배 되야 모든계획이 발각되얏스므로 거사치 못하고 몸을피하야 다니다가 상해에서 만복화(萬福華)가 서남조재 왕지춘(西撫巡撫王之春)을 암살할때에 관계되야서 경찰에 잡히엇스나 성명을 변하고 무사히 나왓는데 다시 일본으로가서 손일선(孫逸仙)들과 혁명의 통일을 꾀하고 광동에와서 비밀히 활동하는동 이라는것을 왕한은 동지들에게 자세히 드러서 알게되얏다 그때의 청국 혁명당원들은 가튼 당원에게 자기네 수령의조흔 력사를 자세히알게 하야서 일반 당원으로 하야금 수령을 신임(信任)하도록 하는것이 당원으로서 당연히 할필요한조건중의 한가지엿다

청국 정부에서는 혁명당의탄압(彈壓)이 극도로 심하야 서 혀명당을 잡는데에 수령은 일천냥 보홍당원은 이백냥의 상금을 걸고서 잡는중이므로 돈이라면 눈이 어두운 당시 청국 경찰들은 관리된 직무보다 상금에 욕심이나서 조금만 수상한 사람이면 되는대로 부뜨러다가 가진 형벌을 마음대로 하는중이엇다 그것을 아는 혁명당원들은 극도로 비밀을 직히는 동시에 옷속에다 피스톨을 감추고 단장에다가 칼을감추며 손가방에다 폭탄을 감추고다니다가 만일 경찰에 부뜰녀서 면할수가 업는 경우에는 힘대로 겨루를 하게되고 마힐 그들의 주머니에 상금보다 만흔돈 직 수령의 주머니에 천냥이상의 돈이 잇고 당원의 주머니에 이백냥이상의 돈이 잇다면 경찰에 잡혓다가도 당장에 빠저나올수가잇는것이엇다

그리하야 그때 광동에는 인심이 대단히 흉흉하야서 오후 열시만 되면 상점의문을 다치고 길에 행인들이 별로업스므로 완연한 계엄상태(戒嚴狀態)에잇섯다

왕한은 여관에 드러서 동지들과 이약이 하기에 해가저무럿다 저녁밥을 먹은뒤에 동지들은 왕한의 피로를 일즉이수게하기 위하야 도라갓다 왕한은 옷을벗고 자리에누어서 잠을 청하랴고 하얏스나 창순을 생각하기에 눈이 반반하야젓다

문밧게서 여러사람의 발자최소리가 나더니 아모말도 업시 문을열고 두사람이 신을 신은채 드러서고 밧게는 여러사람이 문을 막어선다 그들은 왕한을 불너 이르켜서 옷을 입으라고 한다 왕한은 누구냐고 무럿스나 그들은 대답도 아니하고 옷닙기만 재촉한다 왕한은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러나서 옷을입기 시작하얏다

『어서어서』

하고 밧게선 사람들이 재촉을 하니까

『어서 빨니좀 입어』

하고 방에드러선 두사람이 호령스럽게 말을하면서 압혀 선사람이 발로 왕한의 무릅을 툭 찬다

勞賃引上을要求 百餘鑛夫結束罷業

米價、其他物價高로生計못되여 朝鮮砂金肅川作業所서

【肅川】 평남평원군(平原郡)숙천면(肅川面)과 동송면(東松面)에서 대규모의 사금을채취 작업중인 조선사금광회사 사용인부 백여명은 요지음미가기타일반물가고에 따라 종래의 일급으로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수업스니 금후로는 륙십전을 칠십전으로 인상하여달라는 요구를 회사당국에 제출하엿는데 동시에 굿게결속하고 지난일일오후부터 일제히 파업을단행하엿는데 당지경찰당국은 사태를 중대시하고 그조정에 분주하엿스나 아직 그해결을보지못하엿는데 회사당국에서는 동경에잇는 본사의보고에 의하야 선처하겟다고 언명하엿스므로그 회답여하가 크게주목된다고한다

不用物拂下에 談合事件綻露

【釜山】 요지음부산경찰서에서는 극비밀리에 모종사건으로 활동을개시하고잇는데 자세한내용은 비밀에 부침으로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진해 요항부(鎭海要港部)에서 불용품을 불하한일이 잇는데 경남각소에 산재하야잇는 고물상들이 담합(談合)하야 입찰한것이 폭로된것이라는바 삼일오후에 부산경찰서원이 부내 모고물상(古物商)을 검거하야 방금 엄중취조중이라한다

녀자 량오십명을 수용하고 한글과 산술을 작긔제씨가교수하리라는바 동회에서는 작년에도 이러케부인들의 문맹퇴치에 대마력을가하야 일반의 찬송이 자자

三水郡의雹害 一萬三千餘圓!

【惠山】 삼수군 호인면 별동면(好仁、別東面)일대에 지난달십삼일사이 내린 초설(初雪)의 피해를 바든 주로작물 대두(大豆)、교맥(蕎麥)、속(粟)등으로 피해면적 삼백륙십정보에 손해액은 일만삼천여원에 달한다는데 당도한 추위에 주민들은 긔한의 참상에 당도하고잇다한다

하다는데 만히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講師 金仁涅 李□□ 洪元其 宋在金

年來의懸案이든 咸中老會紛糾事件 臨總의決議로一掃

【咸興】 함경남도(咸鏡中部)치 야소교장로교회로서 조직된 함중노회(咸中老會)의 분규사건은 그동안 세상의 시청(視聽)을 끌어오든중 지난이십팔일부터 함남 리원군(利原郡) 리원야소교회당에서 림시총회를 개최하엿는데 개회벽두 방청석으로부터 함중로회(咸中老會)의 부정사건의 내막을 게재한 장문의 성명서를 제출하엿스나 통과되지못하고 장내는 살긔가 충일하야 수습할바를 몰을만큼 혼란한중에서 의사가진행되든중 동대회서기 안상철(安相喆)목사는 사무 집행중 서긔문부를 내여던지고 퇴장하자 뒤를니어 김성노(金聖魯) 유긔언(劉基彦) 안길선(安吉善)등목사도 일제퇴장함으로 임시정회하엿다가 이것은 자파의 불리를 깨닷고 류회(流會)를 책모하는자의 행동이니 대회의 위신상 속회하자하야 동삼십일(이십구일은 례배일)에 다시 속회하엿는데 함중로회(咸中老會)의 내재적(內在的)분규리유든 리정화(李正華)목사의 적발로 전부탄로되여 팔구년동안 나려오든 함중로회(咸中老會)의 저긔압(低氣壓)은 이것으로서 완전히 일소된것인지 금후의 전개는 자못 주목된다는데 그결의사항의 대강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滿東長老會事件李氏處理의件
二、開城青年會員處罰의件
三、安牧師不信任案의件
四、金元培事件의件
五、無所屬牧師處罰의件
六、無所屬傳道師處罰의件

店員大運動會 盛況을豫期하는

【枇峴】 평북 비현(枇峴)에서는 조선농정원회주최와 감상청주 조선동아광지국후원으로 대운동회를 오는 십이일 비현시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는데 각지일반점원은 다수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하며 이날 시민운동까지 겸하야 근래에 보기드문 각종 경기가 전개될것이므로 아조 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水原醫院出張所 地方巡回診察

【水原】 지난구월이십육일 팔일간에 경기도립수원의원 리천출장소에서는 군면경찰서의 응원을 바더가지고 양평군 지제면수리와 갈산면양근리 공회당에 의사이명이 출장하야 무료진찰을 하얏는데 진찰을바든 사람이 약오백명이엿다한다

債券賣買依賴밧고 處分後全部橫領 判明額만이 一萬六千圓

【咸興】 함흥서에서는 지난일일오후한시경 부내대화정 삼정목에서 행동이수상한 일본내지인일명을검거하여 엄중히 취조한결과 그는본적을 복강현안군복도정본정(福岡縣安郡福島町本町)에둔 허비차평(許斐次平)(三○)이란사람으로서 소화팔년 칠월경부터 투긔사업(投機事業)에 실패한결과 본적지에서 석정선덕(石井善德)의 수명으로부터 공채(公債)매각의 의뢰를 바든것을 긔화로 이것을 혼자 매각소비한 횡령범인것이 판명되엿는데 현재판명된 피해액만도 일만육천삼백팔십여원이 되며 취조에따라 여죄도상당히 잇슬것이라고하는데 근래에드믄 거액횡령범으로 취조경관도 일경을마지안햇다고한다

被害六百餘町步 罹災民八千餘名 化城面의雹災後報

【青陽】 충남청양군화성면의 풍박재난은 루보와가티 일반농작물이 전멸상태임으로 남녀노소업시 총출동하여 떠러진곡식을 줏고자하나 진흙속에 박힌것은 도리가업서서 도토리와 상수리로 근근히생명을 보전하나 엄동이각가워옴으로 무엇을먹고 명년보리고개를 넘길가망이업다고한다

지석명 저주와의교섭기타경과보고 금후의진행방침등에 대한설명이잇슨다음 감사(監事) 장남섭(張南燮) 윤명환(尹命煥) 김의정(金義政)등삼씨를 선거한후 만사를 역원에게 일임키로하고 동오후십일시경에 무사폐회하엿다한다

馬山港錦町海面 埋築計畫進捗

【馬山】 중앙마산의 대매축이완성되여 대마산건설이 착착 진행되고잇는 이때에 또다시 금정(錦町)의 지선해면의 매축계획이 진행되여 발전되는 마산항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되다 그계획의 내용은 부산(釜山)모유력자가 금정지대의 장래발전에 착안하고 매축계획을세워 유효면적등을 전형한결과 수산(水産)회사압해서 근위악(近衞岳)남방돌단에 이르기까지 매축 구역의 유효면적 총이만여평이 되는데 공비는 약륙만원을 계상하며 완성키는 소화십삼년까지로 이의 정식허가신청을 도당국에 제출하엿다한다

住宅組合臨總 進行方針討議

【永登浦】 긔보=영등포주택조합은 지난구월일일조직이래 지주대조합원간의 타협이 원만히진행되고 따라서 역원기타의로력으로 내부의진용도 완전히정돈되여가는동 지난이일오후팔시부터 본보영등포지국루상에서 리사 김민식(金敏植)씨외 사회로림시총회를열고 검리사로부터 취

婦人蓄米會主催 婦女夜學開講 講演會도開催

【元山】 조선인의 생활개선은 무엇보다 부인에잇다는 부인들의 각성과 그들의 실천궁행에 잇다는 견지에서 소리치고 탄생한 원산부인축미회(元山婦人蓄米會)는 창립이래 부인들의 생활개선및 그들의 문화향상을 도하야왓는데 오는구일 오후한시에는 원산 제이공립보통학교강당에서 생활개선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되엿고 십월십사일부터 삼주일간에는 원산제이공보 교실에서 문맹에우는 부

生活苦와家庭不和로 一日間自殺二件 六旬老人餘生淸算

【平壤】 가을바람불든 이일평양부내에서는 자살사건이 둘식이나 생기엇다

하나는 오후두시 경제리(鏡齊里)일백십일번지 잡화상 임리제(任利濟)(六七)란로인이 소주속에다량의 아편을 타마시고 자살햇는데 원인은 자근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관계한것을 타이르다가 듯지안허 홧기야 자긔가 자살한것이다

또한가지는 원적을 황해도송화군 봉면석도리(松禾郡□□面石島里)에둔 배상순(裵相淳)(六○)이 로쇠와 생활난을 비관하고 오후아홉시경 대동교(大同橋)아래에서 강가운대뛰여들어 자살하고말엇다

馬山支局後援 北面庭球延期

【馬山】 긔보=창원군 북면(昌原郡北面)마금산체육회(馬金山體育會)주최와 본보 마산지국후원의 남조선정구(南朝鮮庭球)대회는 음구월구일에 개최할예정으로 제반준비가 진행되고 전에 못보든 상품오십원으로 인긔가 비등하고잇든중 돌연 마산경찰서로부터 륙군대연습관계로 후퇴하기로되엿다한다

“복장이국”에中毒 全家族이呻吟!

七名中一名死亡、六名危篤 釜山府草梁町의慘事

【釜山】 지난일일에 부산부초량정(草梁町)구백이십이번지 박경조(朴敬祚)는 동일 석반지어에 하돈(河豚)으로 국을끄려서 일가족 팔명이 먹엇든바 약일인이아칠부터 전가족이 이에중독되여 박경조는 드듸여 사망하고 그외일곱가족은 방금신음중에잇는데 모다 생명이 위독하다한다

山猪群이跋扈 農作被害多大

【會寧】 회녕군 창두면 팔을면(八乙面)산간지대에는 여름이후 곡충(穀蟲)이 치성하야 조(粟)옥수수(玉蜀黍)대두(大豆)등에 막대한 피해를입힌 나마지에 근자에 와서는 산저군(山猪群)이 도습래하야 감자(馬鈴薯)를 모조리 파서 먹기도 하고 답압(踏壓)하야버림으로 산간농가에서는 창천만바라보고 호소할뿐이라고한다

酒代다툼으로 顧客을刺殺

【濟州】 지난이십팔일에 제주도 한림면수원리(翰林面洙源里)에서

安岳郡에雨雹 菜蔬全滅狀態

【安岳】 가을하늘이 매우 가물어서 채소농사가 황해도안악근방(黃海道安岳近方)에는 일대문제이어서 겻닙은 서리마저 단풍들고 속닙은 말러저버려서큰 우려중이든바 지난이일에는 보슬비가 하로종일토록 나려서채마에 다시금 소생할생명수가되드니 이튼날인 삼일오후세시경에는 갑작이 소나비와가티 큰모래와가튼 우박이 쏘주하야 채소전반이 전멸상태에 이르럿스며 기타일반농작물의 피해도적지안타고한다

天下名勝金剛山 探勝團員募集

本報京南支局主催

【京南】 금강산이 대자연의 선물로 금강산을 이루워 일만이천봉의 찬연한 산세를 내여놋코 우리의 강토를 전세계에 자랑하야 조선의 존재를 알리고잇는 천하명승 금강산은 지금 붉은 단풍으로 단장을 하고 시인과 문객들을 반갑게 부르고잇다 이때 본사경남지국에서는 제이회로 내외금강산탐승단을 모집키로되엿는데 이긔회를 리용하야 다수 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一、募集人員 二十名
一、出發 (龍山驛) 十月十七日 午前六時四十二分 (往十里驛) 同日 午前六時五十五分
一、歸着 十月二十日午後九時二十分龍山驛又는往十里驛着
一、探勝地 (內金剛)長安寺 明鏡臺 表訓寺 萬瀑洞 摩訶衍 妙吉祥 毘盧峰 (外金剛)新萬物相 玉流洞 九龍淵 神溪寺 (海金剛)海萬物相 三日浦 叢石亭 東汀湖
一、會費 二十圓(汽車、食費、宿泊、寫眞、自動車料全部)
一、申請期限 十月十五日까지
一、申請場所 京城新龍山利泰院 朝鮮日報京南支局 又는往十里驛前 大山醫院

異次頓의死 【6】

李光洙 作 金奎澤 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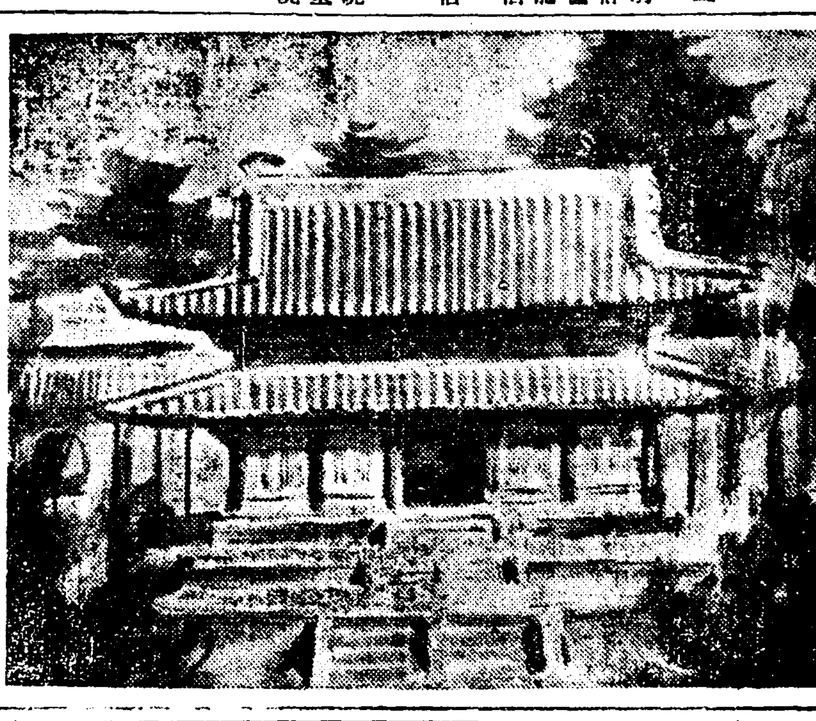
이때에 대궐에서는、오늘은 정사를 쉬이는 가웃 명절이라 왕께서는 천천에 원로와 중신들을 부르시와 주식을 나리시고 평양공주와 이차돈의 혼인을 의론이라기보다는 선언하려하엿다。왕의 생각에는 이차돈 자신이나 이차돈의 조부 한마로 아들손(阿珍飡)은 말할것도업고 누구나 이일에 반대할 사람은 업스리라고 미덧다。

왕의 부르심을 바다서 모인사람중에는 왕의아우시오 장차 진흥대왕의 아버지되실 선마로(立宗葛文王) 서불한 어진마로(또는어진아비—哲宗、또는 哲夫)、이손 이마로(伊宗、또는 異斯夫)、이손 물력(勿力—거칠마로의 아버지)、비둔공옥(比豆公玉宗) 할아손 일옷(大阿飡謁恭)가틀이들이 잇섯다。

이차돈의 조부 아들손 한마로(阿珍宗)도 원로중에 한 사람이엇다。한마로는 고옹을 침묵하엿으므로 그 뒤업이 날로늙어서 아모리 세력잇는 신하라도 감히 임금의 뜻을거슬이지못하엿다。

전부터 큰세력이 잇기로 말하면 거칠아비의 아버지 물력 이손이지마는 그조차 근래에는 쉼한 어진아비는 입을 닫어버렷고 아조 임금에게 눌리어버렷고 서로 세운사람이오 물론 차응에 가장 큰 공로자인 이마로(異斯夫)는 물론 된 충신이어서 오직 나라와 임금을 생각할뿐이오 제 공을 자랑하려하지 아니하엿다。그리고 이차돈의 조부 한마로는 한자님이오 엄격한 도덕가로 공명도 바라지 아니하고 임금의 서릴을 어드라고 애를 쓰지도아니하엿다。그래서 그때에 지체가 조코사람도 잘 낫건마는 세상의 존경은 바드지언정 세력가는아니엇다。

공목(工目)과 알공(謁恭)은 다 소 음험하나 수완이 만흔 정치가요 따라서 대단히 야심이



를 기다리는동안 왕은 대단히 유쾌한 태도로、

『금년에는 전국이 풍년이 들어서 오곡백과가 다풍성하니 백성들이 배가 부를것이라 다 경들이 리롭앙순사시를 잘한 공이오。마음에 그득하니 자 사양말고 술들 마시오。풍년처럼 국가에 경사가 또 잇는가』

하고 금잔에 가득 부은 누런 햇살 술을 왕이 먼저 들어마신다。

신하들도 한 잔을 마시고、그중에서 어진마로 서불한이 가장 지위가 놉흐매 제신을 대신하야、

『황송하옵니다。나라이 잘 다슬고 시화세풍하와 백성이 배불리 먹고 격양가를 부르는것이 모도 성주의 은덕이시옵지、소신등이 무슨 공이오리까』

하고 부복하엿다。

그러나 중신들은 오늘 무슨 일로 임금이 이러케 입옥이다들 불르셧나? 하고 궁금하엿다。그러나 임금은 즉위하신지 불과십여년에 남으로는 금관국과 싸와서 이기어 만흔 땅과 백성을 어더 금관국은 인제는 임금과 서울이 남엇슬뿐 이라 신라의제후나 다름이 업슬뿐더러 말 한마되면 금관국왕 구해(仇亥)는 아주 신라의 신하가 되어버릴지경이 되엇고、또 공으로 우메(于山國)울처서 항복바닷고 서로는 백제와 차회 비록 그리 크지는 못하더라도 벳만흔 사람이엇다。

임금은 죽히 이 여러사람중 본성과 특장을알아볼만한 총명도잇고 학문과 생각도 뛰어나시고 또그들을 위압할만한 풍신도 잇섯다。그러나 왼 일인지 항상 몸에 병이 잇서、그 때문인지 번뇌성이 만흔 한것이 흠이엇다。국정에 대하여서도 임금은 여러가지 놉흔 이상을 가젓건마는 신하들이 그 이상을 잘 알아주지못하고 반대를 하면 신념은 신념대로 두고도 그대로 관철하지를 못하엿다。

일례를 들면 임금은 인재를 널히 엇기위하야 이모(二毛)、준정(俊貞)이라는 두 아름다운 여자를뽑아 원화(源花)를 삼아서 젊은 남자들을 만히 모아 그 인격을 시험하는 제도를 세워 그중에서 뛰어난 청년에게는 두 여자로 하여곰 그 머리에 꼿을 꼬잣게하야 머리에 꼿을 꼬즌 청년은 꼿서방님이라 하야 임금이 친히 불러보시고 상급을 주고 벼슬을 시키라고 하엿스나 이것도 여러 신하들의 방해로 뜻가티 되지못하야 이모와 준정의 질투싸움을 긔회로 일시 폐지하엿다。이 모양으로 임금은 제 신념을 끗까지 우겨나가는 힘이 부족하시엇다。만일 이 임금에게 굿센 의지력까지 잇섯던들 즉위하신지 십삼년에 내치외교에 더 만흔 공적을 나타내엇슬것이다。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솟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田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實藥商店에잇습니다 各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ノーシン

머리가몹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리를압을때……노ー신

노ー신

定	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二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當校는高名한敎授를招聘하야每年六百餘名의勇士를養成하며 四十八圓에免許를得할수잇고 就職後는月收入五十圓以上。絶對安全코責任잇는學校로斯界서公認

隨時男女學生募集 朝鮮第一自動車學校 (太平通二丁目)

學則請求는二錢切手要、電本四〇六八、京城府驛前

自動車新法規及就業免許試驗用地圖發行・運轉手・助手・學生은必히 一冊을 前金一圓三十錢

山國・渡邊醫學博士推獎

喘息新治療藥 コデス

藥書로申込 試藥進呈

百日咳에 小兒用시루푸

各藥店에잇습

笹岡製藥所

頭痛에 はれやか 하레야가

￥.30 ￥.50 ￥1.00

우리큰애기는
무슨음식이나 쉽게
맛잇게하지오 동내
서 요리일ㅅ등 선수
라고 들 한답니다

모든음식을맛잇게하는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小冊子「四季朝鮮料理法」定價五錢 送料三錢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鈴木商店朝鮮事務所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10—口

紙物

△粧板・牡厲專門製造
◎大量生產◎廉價販賣

大興製紙工場

全北全州郡所陽面大興里

主 姜敏石

登錄 商標

新。生。薑。

販賣時期—(陽十月十五日頃 陰九月中旬頃)

全羅北道特產品

鳳翔生薑指定取扱人

社團法人 鳳翔產業組合

全羅北道 全州郡鳳東面 振替京城二〇、〇五八番

十月三日부터大公開 ナツパ服四人組 監督……那部貞砂雄氏 主演……大日方傳 大矢市次郞 中倉 勝

西部活劇 怒濤 콴스 全七卷 監督……리비도히리아氏 主演……마코쥼스氏

十月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七時 特別料金

◇京城撮影所超特作全卷發聲 春香傳 監督撮影 李明雨 錄音、李弼雨、中川堯史 文藝峰、韓一松、林寔鎬、崔雲峰、李鍾哲、朴齊行、金蓮實、盧載信、金英淑、共演

◇파라마운트超特作日本版 요셉혼스타인監督作品 마르렌、띄트릿히主演 西班牙狂想曲

◇東京日日、大阪每日世界ニュース

◇團成社特作漫畫

桃花劇場 團成社

伊에開戰의日本財界影響
一般人氣極冷化
輸出產業에好刺戟이되나 ◇…豫斷不許로警戒

畢竟 伊界의 緊張을 끌고든 伊에兩國의開戰은 시작되고 말엇다 이開戰은 日本財界에 어떠한影響을 밋칠가 함에잇서서 既報한 바와가티 日本의重工業 纖維工業其他의 一般輸出產業에 好影響이 잇슬것이라는 期待를 갓게되다 그러나 이兩國의 開戰을 伴하야 問題國의 英國이 果然 어떠한態度를取케될가 또는 그戰爭範圍의 擴大與否와 그戰爭期間의 長短等에對하야 아즉 輕輕한判斷을 하기가 어려운마큼 곳 이 伊에兩國의開戰으로써 日本財界에 밋칠影響이 어떠할가 말하기는 尙早한터이다 이런때문으로 그開戰의消息을接하고도 日本財界는 相當히 冷靜한人氣를呈하고잇다

今後關心處 英國의態度 戰爭期間長短與否

【東京電話聯合】伊、에兩國間의 戰鬪行爲開始에 關하야 日本財界는 매우重視하는데 一般의 意向을 綜合하면 事態의推移가 英、佛을 動員하기까지 擴大化할것으로는 보지안코 伊、에兩國抗爭이 日本重工業、纖維工業其他의 一般輸出產業에 好刺戟으로 될것이나 實質的影響은 그대지 크지안흘것으로 觀測되다 目前의問題로는 埃及方面의 輸入이 限害될것이나 經濟界에 伊、에開戰의 日本財界의 好影響은 이미 미리 各方面으로 나온것으로 볼수잇서서 四日의 各淸算市場은 靜穩하얏고 큰變化가 업고 業界로는 주로 依然伊에의 態度如何를 注視할 必要가잇다고 觀測되다

各淸算市場靜穩 一段高나今後形勢注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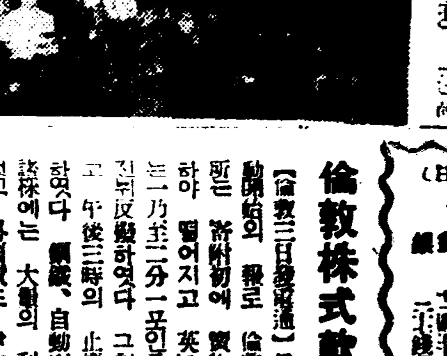
紛爭飛沫 曹達工業에 打擊이相當

【東京電話聯合】伊、에紛爭으로 第一로 그影響을 바든것은 日本曹達工業으로 曹達會社는 그原料로 年額 百二十萬噸을 海外輸入에 依하는데 그中 關東州 青島滿洲等 除東地方 三十萬噸을 除한外 餘八十餘萬噸은 에리트리아 소말리란드 埃及、西班牙等에서 輸入되는것인데 에리트리아等은 이미 戰爭의 被害가 困難케 되고 曹達會社 特히 旭硝子、日本曹達工業等은 食鹽의 輸入에 苦心慘憺한 模樣이다 伊에紛爭이 오래동안 걸리면 各曹達會社와도 當然히 그原料를 佈哇、滿洲、南利比亞 米利加等에서 大量輸入을 할수밧게업서 目下各社가 모두 그準備에 苦心中이다

後에 株式과 商品은 一般高이엇스나 別로 큰影響이 업섯다。이제各市場別로 三日後場大引値와 四日前場寄付를 比較하면 如左하다。

◇朝取株式短期

	三日後引	四日前寄	比較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日後引	四日前寄	比較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期米先限

	三日後引	四日前寄	比較
大阪	[illegible]	[illegible]	不變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大阪商品先限

	三日後引	四日前寄	比較
綿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棉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人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今日財界 (四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合三等米新一石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一斤價 在米 [illegible]
◆市中金融
金錢 十一圓五十八錢 十一圓五十八錢 一匁賣 一匁買
銀錢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倫敦株式軟弱

【倫敦三日發電通】伊太利軍行動開始의 報로 倫敦株式取引所는 寄附初에 賣物이 殺到하야 떨어지고 英國政府公債는 一乃至二分一포인트가 떠러저 反撥하엿다 그러나 午後三時의 止價는 軟弱하얏다 鐵鋼、自動車、航空의 諸株에는 大戰의 利得物이 잇섯고 外國債도 伊太利物을 비롯하야 弱하야 日本、墺地利、南阿諸國債等이 모두 軟調하엿다고한다

羅馬株式急落

【羅馬三日發電通】三日의羅馬株式市場에서는 伊太利軍 進擊開始의 報로 軍需工業株는 二포인트가 急落하엿는데 其他株式은 強調保勢이다

(商價는四日의朝取證券市場)

米日爲替續落

【紐育三日發聯合】三日의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五仙低 賣二十八弗六十七仙으로 五仙低 買二十八弗六十四仙으로五仙低

◀東京爲替(四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九 買二十八弗十六分十一
對英 賣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四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九 買二十八弗十六分十一
對英 賣一志二片三十二分一 買一志二片十六分一

橫濱生絲暴騰

橫濱生絲는 四日後場에 待望이던 九百圓市勢가 나와 先限後場의 東京、福井、大阪의 各地人絹淸算市場은 四日에 先限七十一圓高로 暴騰하얏섯다

經濟界消息

一、日本內地職工에比較하야 朝鮮人職工의 長所及短所에對한 男女別 概說

○鎭南浦米穀取引所‖鎭南浦米穀取引所는 오래동안開店休業狀態이든바 十月一日부터는事實上 閉鎖이라고

○煙草耕作組合役職員表彰‖京城煙草耕作組合聯合會에서는 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 記念祝賀에 順應하야 煙草耕作組合의 永續勤續者인 組合長七名、理事三名、評議員十五名、技手及事務員四名、耕作者總代二百十八名、合計二百四十七名에對하야 安井同協會長으로부터 지난一日 一齊히 表彰狀及記念品을 贈呈하엿다고

商況 (四日)

株式 人氣冷靜 堅强

前場小高 伊軍卒爾開始로 買氣擡頭하야 大新百圓五十錢、東新百六十四圓丁、日產八十三圓八十錢에 올랏섯스나 人氣冷靜하야 高價買戒로 結局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一圓二十錢高인 百六十三圓七十錢、日產 九十錢高인 八十三圓三十錢、大新 一圓三十錢高인 百圓六十錢、朝新十錢高인 三十一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日產五十七圓丁 商船新十九圓十錢이어섯다。

◀大新[illegible](寄) [illegible]
◀朝新[illegible](寄) [illegible]
◀東新[illegible](寄) [illegible]
◀日產[illegible](寄) [illegible](引)

後場靜穩 後場은 東新百六十三圓四十錢、大新百圓二十錢 日產八十三圓八十錢、朝新三十一圓七十錢에 寄付 大體依然靜穩으로 推移되엇다

期米 續落後에 下澁

前場小落 昨後場 阪地三十一圓〇六錢止로 二十八圓八十五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 三十一圓〇六錢인 昨止同際의 報를 擇하고 二十八圓八十錢인 五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三十圓九十錢으로 反落하엿다가 八節三十一圓〇四錢으로 三十一圓丁에 止場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中先立會도場面이 極히 閑散이오 內國債는 保合이나 米貨債에選分物이 出하야 六分半 一圓四十錢 五分半七十錢의 各低落이엇다

甲五分利 一〇四一〇
佛貨四分利 一八六三五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十枚
◀朝日醸造[illegible] ◀京南鐵道[illegible] ◀鮮滿開拓[illegible] ◀朝鮮郵船[illegible] ◀日本郵船[illegible] ◀大阪商船[illegible] ◀日產新[illegible]

市場小感

株

伊「에」는 畢竟 開戰 ▲방송에 伊軍空襲의 號外를 보고 明治町으로 모혀든 사람이 꽤만엇는데 ▲大阪人氣를보니 東新 百六十四圓三十錢 大新 百圓八十錢이고 東京東新은 百六十三圓六十錢이라 ▲一高는 一高이나「향」소리가 낫다는데 겨우 요것이냐 고 失望도돌아요 ▲그래서 前場의 朝取證券市場은 閑散靜寂 ▲九月十九日에 이미 世界第二次大戰까지 豫想하고 熱狂한뒤이오 더구나 今月一、二日에 戰爭人氣 再燃으로 新高價를 내인터이라 ▲정작 伊「에」開戰을듯고는 人氣가 冷靜 ▲今後의 問題는 英、佛까지參戰하야 第二次世界大戰이 나오느냐 안나오냐에 달렷는데 ▲大戰이업다면 天井은 이미 나왓다할수잇고 大戰이 잇다면 東新이 一氣로 二百圓도可也오 將次는 五百圓、七百圓、千圓도 期待할수 잇슬뜻 ▲그러나 英、佛態度를 지금에잇서서 確斷할수업스니 賣키도 어려웁고 買키도 어려워 迷惑만甚할뿐

米

▲世界의 耳目을 集中케하든 伊「에」의 開戰은 結局 交火를 함에至하엿다。그러나 株界는 意外 伸悩狀態를 뭇하고 米價는 돌이허 反落 ▲그러나 戰雲이 濃厚하여짐을따라 株價의昇騰을 見할것이며 米價도 間接의影響이 업지안흘것을 可期 ▲그런데 쌀은 쌀의事情이 잇는만큼 日本內地米作 第一回豫想 六千萬石臺의 維持를 擁로하야 보기조케 數段瓦落을 告하엿다 ▲그래서「마바라」의總路落을 當한모양인데 低價에는 依然 買物이 旺盛 ▲그原因은 第二回豫想은 六千萬石臺를 割破하야 훨신 減收를 示할것이라는것 ▲그뿐만아니라 政府는 明年度에도 本年과 如히 大量拂下를 하지안흘것을 唯一한 信條로 하는모양 ▲果然米洪水期에 入하야 如何한低價를 示할지는 몰으나 大體 本年 新米期의 모든事情이 昨年과 恰似하지 안흘가한다 ▲實로 昨年新穀期의 米價는 農家의賣惜으로 容易히 低落하지못하엿다가 越年後의 反落을 告하엿다 本年米의 前途도 亦如是하지 안흘는지 몰라

買氣依然不絶 慘落을보고도

今回 日本內地 米作第一回豫想은 六千五百萬石臺의 維持를 唯一의好材料로한 軟派의 攻擊에 一時崩壞되어 約 一百廿丁의 慘落을 演하얏스나 買氣는 依然不絶하야 押쇠에는 相當히 買指하고잇다。果然 買方針을 固執하는것이 無謀라할지 又는 遠落인지는 몰으나 大體 買根據를 綜合하야보면 第二回豫想은 第一回 米作豫想을 調査한後의 天候가 比較不良하엿든만큼 六千萬石臺를 割신割破하야 約二百萬石程度의 減收를 見할가가 十常八九일뜻한觀測과 又는 政府의 政策은 明年度에入하여도 本年의方針과如히 大量拂下를 하지안코 六百萬石程度의 常備米를 抱擁하게될것이며 딸아서 民間在米의 品薄을 免치못할것이라는 推測에서 買方針을 捨하지안코 此際의 低落은 차라리 當然한押目으로 解하는 買方이 多한모양이다

後場下澁 後場은 二十八圓七十五錢에 入하야 後場中에 二節六十五錢에 反落이어다가 五節七十四錢으로 別圓가터 止場하다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二ノ
電話長 九一六 一六九三 一二六五

需給推算一考 依然樂觀不許

日本內地米作 第一回豫想 六千 五十六萬五千石을 基準으로하고 明年度 需給推算을 하여보면 日本內地의 一年間 消費量이 七千三百萬石 假定임으로 結局本年米作만으로는 一千二百五十五萬餘石의 不足을 告하게 되다 그러나 來米穀年度의 持越高 一千萬石과 朝鮮及臺灣米의 移入豫想高 一千四百萬石을 充當하면 總合計가 八千四百五十六萬五千石인데 此에서 輸移出豫想高 九十萬石과 第二回豫想減收 二百萬石을 控除하면 八千百六十六萬五千石의 數字를 나타내게되며 此에서 一年間 消費高 七千三百萬石을 除하면 明年度 持越高가 八百六十六萬五千石이되다 그中에서 政府米 六百萬石으로 假定한다면 民間米의 持越은 二百六十六萬五千石으로 結局 需給의 緩和를 免치 못하게되다 果然本年米의 實收高가 如何할지 注目을 要할바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賣方地場中東側、小口側處分 ▲買方神戶側、地場

各地正米

京城續落 新米實物이 逐日 增加되어 期米의 惡目을보고 氣配十錢續落인 丸仁三等三十圓四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八十錢

仁川續落 定期惡目으로 買氣挫折되고 新米出廻增加와 相俟하야 氣配十錢續落인 丸仁三等三十圓四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illegible]

釜山下走 在貨豐富한 新米等의市場實物이 千五百叺이잇고 日本內地實行不振이나마 當用實需向에 強消化되어 市勢十錢低로 一〇七六叺의賣行이잇섯다 三等三十二圓丁 四等三十一圓[illegible] 一等白米[illegible]

大邱不變 定期의 軟調를보고 買方不進하야 閑散裡에保合인 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圓六十錢 一等白米[illegible]

群山續落 期米의 惡目을보고 買氣不振이나 品薄되는產地賣物旺盛으로 氣配更히 二十錢引인 三等新米三十圓九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illegible]

木浦不振 天候依復이나 新米의 出廻가 아즉업고 定期低로氣配稍軟化 擴張이나마 取引皆無의 休商狀態인 丸木多摩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一等白米[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四日)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高價	低價	取組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船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算定 代引 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 (四日)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仁川 釜山 大邱 群山 木浦 鎭南浦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屋 [illegible]

商品 (四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現物D格八四五〇 [illegible]
◆海外砂糖 現物糖(ST) 賣買中値二一·五五錢 [illegible]

金融 (四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四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鰮搾粕冲價 [illegible]
◆鰮油冲價 [illegible]
◆米豆期貨 [illegible]

金銀買入
奬金號
京城府貫鐵洞一二四
電話光一五九九

今年新穀出廻期에 昨年同樣短期貯藏
目下總督府에서調查着手
正租玄米 八十萬石程度

朝鮮米의 收穫은 第一回豫想에 잇서서 一千七百八十餘萬石、日本內地도 六千五百餘萬石으로 前年以上이 豫想됨으로 總督府에서는 今年도 繼續하야 移出調節을 目的으로하는 短期貯藏을 實施할에方針을 決定하고 目下 農產課에서 短期貯藏數量方法과 資金等에 關한 諸般의 調査를開始하엿다 十年度의 臨時米穀統制豫算은 公布豫算에 前年度程度의 것을 計上하고 따러서 九年度와가티 正租 玄米八十萬石가량의 短期貯藏을 하게될 것인데 農林局에서는 今年度의 貯藏을 前年度程度로 끄칠것인가 或은 擴大할것인가 함에對하야 研究中이라고 한다 그러고 資金關係에 對하야도 財務局과 折衝中으로 이것을 決定하면 預金部資金을 受入케될것이라고 한다

第二次米拂下 成績不良豫想

政府所有朝鮮米의 賣殘十四萬七千石賣拂은 四日鮮色保證金受付 五日入札、七日決定으로되바 昨今의 期米市場이 日本內地、朝鮮의 收穫豫想高와過高의反動으로 軟調를 示하고 또 新米의 出廻切迫으로 가령 政府의 數札이 多少緩和되드래도 그趨勢는 不良치안흘가 觀測된다고 한다

北朝鮮冷害 對策協議會
六道技術者가 會議合

北朝鮮冷害對策協議會는 오는 二十五日부터 三日間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黃海 平南北 江原 咸南北 農務課長 農事試驗場主任 林務主任 山林指導技術官等의 參席으로 열릴터인데 이번의 會合은 다만冷害對策뿐이아니라 各方面으로 注目되고잇는 高地帶에잇서서의 工業原料作物의 獎勵에 關한根本方針에 對하야도 從來의 試驗結果에 依하야 具體的意見의 交換이잇스리라 하므로 高地帶農業에 一新機를劃할것이라하야 一般은注視하는터이라고한다。그러고 이會合의農林局諮問事項 答申事項及協議事項은 다음과갓다

▲諮問事項‖從來의 冷害狀況及 그에對하야取하여온對策의 實績及冷害防止上 將來急施를要할具體的方法

▲答申事項
一、昭和六年以後의 冷害狀況
一、從來에取한 冷害防止對策及冷害時의 善後策과그實績
一、冷害防止 特히 急施를要할具體方法

▲協議事項
一、耐冷性의 優良品種普及에關한件
一、耐冷性作物栽培獎勵에關한件
一、耕種法改善에關한件
一、有畜農事獎勵에關한件
一、土地改良事業施行에關한件
一、生產物의處理에關한件
一、民有火田의整理에關한件
一、樹林地帶의 造成에關한件

鑛山熱의 一段落?
出願、臺帳圖面閱覽件數減 九月中도漸減趨勢

九月中鑛區出願件數는五百五十八件으로 이것을 前年同期 九百件에 比하야 三百四十餘件의激減을 示한바 이에對하야 總督府 鑛山課當局者는 다음과 가티말한다

今年에 드러와서 三月을 最高로 七、八、九月의 三個月을繼續하야 漸減되엇는데 그와 同時에 臺帳及圖面의 閱覽件數도 減少되는 傾向이다 七、八의 兩月間 減少를 본것은 例年에 依하야 災害期의 現象으로 볼수잇스나 九月中에 그처럼減少된것은 一般으로 出願者가 從來와가티 盲目的으로 出願을 하지안코 企業的眼目에 立脚하야 出願을 하는때문이라고생각한다。그러고 出願範圍가 縮少되는 以로생각을 하는사람도잇슬는지 모르나 이것은 朝鮮의鑛床現狀을 모르는사람의 主觀으로 決코 그런것이아니라 아즉도 얼마든지 出願할餘地가 만히 잇다

朝鮮各鐵鑛 增產의計畫
年百萬噸突破目標

朝鮮內의 鐵鑛生產額은 九年度 五十八萬噸에 達한바 日本鐵鋼資源의 涸渴로 各鐵山에서 各各增產計畫을 進行하고 그中利原鐵山에서는 現出十八萬噸의出鑛을 二十五萬噸으로 擴大의新設備를 하고 日本製鐵利原間에 釜南金海의開發計畫이 進行되며 石原產業의端山鐵鑛、日鐵의兼二浦鐵山도 積行擴大하고 問題의 茂山鐵鑛을 除外視하나 年產百萬噸을 突破할모양인데 이처럼 鐵鑛供給의 朝鮮所業은 重大視되다

京濱運賃에 阪神도反對
그形勢推移重視

京濱間 朝鮮米積取協定標準運賃인 鎭南浦、京濱間七十圓에 關하야 目下 阪神荷主의 諒解를 엇고잇는바 仁川、群山으로부터의 案制運動에 依하야 態度가 强硬하야 推移는 重大視되고잇다 延하야 成立을본 阪神間協定도 瓦解될 念慮가잇다고 보고잇다

出穀迫近 傭船料硬化

朝鮮郵船에서는 出穀期를 目睫에두고 船腹調整上 傭船準備中인바 目下의 傭船界는 歐洲의 政局惡化로 商談을 警戒하고잇슴으로 前途가 豫測되기까지 傭船契約의 締結은 困難하리라고 보고잇다 傭船料는 이로 暗市勢이나 運賃은 一般으로 硬化하야 朝鮮向의 四千噸級、半年物에當三圓五、六十錢을 唱하고잇서 前年同期에 比하야 平均四、五十錢가량의 高唱이다

夏秋繭의出廻가 比昨年三四割減
冷害病蠶等關係로

朝鮮內夏秋繭의 出廻는 大體一巡의 形勢인바 各地 共販에의 出廻는 總體的으로보아 于先昨年의 實績 百八十九萬貫에 比하야 三割以上 四割程度의 出廻減이오 繭質도 冷害、病蠶等의 關係로 意外로 납벗든모양이다

極度原料不足 製絲側休業?

朝鮮製絲協會에서는 原料難緩和策으로 九月一日부터 一割의 操短을 實施하얏는데 春繭의出廻不良으로 아직 一割程度의原料不足으로 圓滿한 操業은 困難되고잇는터에 夏秋繭의 出廻가 別項과如히 더욱 납버 金產額의 一割四、五分에 不過함으로 結局 二割四、五分의 不足未免難狀態이고 一方此等不足額의카바로 講究되고잇는 日本內地繭의 移入도 日本內地가 朝鮮同樣 不作으로 原料不足을告하고 잇는이만치 實現이困難한 狀態로되고 잇슴으로 結局 어느程度의 休業은不得已하리라고 보이어 生絲反騰에 依한製絲景氣도 一때 影響이적으리라고 悲觀되고잇다

工場職工能率
朝鮮商議에서調查

朝鮮商工會議所에서는 職工能率增進研究資料로서 職工百名以上을 使用하는 全朝鮮百十四工場에 對하야 左記事項의 調査를 依賴하얏다。

(各年別)
一、過去三個年間의 退職職工數
一、一個年間의 缺勤調查
一、現在職工의 勤續表
一、職工의 敎育程度
一、職工의 退職及欠勤의 主要한原因에 對하야 男女別概說과 其防止對策意見

全朝鮮郵貯額
人員金額各一割增

全朝鮮各郵便局所에 取扱한九月中의 郵便貯金新規預入者數는四萬一千七百二十一人으로 全拂人員은 一萬九千六百六十七人인데 九月末現在의 預金者數는 三百二十九萬六千三百七十三人 그預金額四千九百五十萬六千四百二十一圓이다 그러고 이것을 前年九月末의 現在數에 比較하면人員及金額이 모두 一割씩을 增加하엿다

開戰이나冷靜

伊「에」紛爭은 畢竟 伊太利軍의아도아 攻擊開始로 시작되어 兩國死傷이 一萬七千餘名이라하며 勇敢한「에」軍奇襲으로 伊軍總退却을 傳하는一方 伊軍側總解에 不堪하야「에」軍이 總退却하얏다고 傳하야 戰爭은 事實로 난모양이다。그러나 株式市場으로서는 이미 九月十九日과 十月一、二日에 歐洲第二次大戰까지 豫想코 熱狂的暴騰을 演한뒤이라 정작 開戰이 되엇스나 伊「에」에 局限된 戰爭이라면 더뒤어올것이 업슴으로 一高程度의 小高를 示하얏슬뿐으로 人氣가 比較的 冷靜하얏섯다

英、佛態度重視

정작「향」소리가 낫는데도 暴騰되지 안흐니 그러면 失望投賣가 나올것이냐 하면 그는 그러치도 안흘것갓다。伊「에」戰爭이 開始는 되엇스나 伊軍이「에」國全土를 占領하라면 二個年을 要하리라하니(英佛外에는 攻擊할수업는데 近代都市와 달너 空爆의 效果가 百%가 아닌때문)이 줄줄 끌려가는 동안에 英佛이 뛰어나와 戰局이 擴大되어 第二次歐洲大戰이 열녀지도 모를으로 지금 暴騰안이엇다고 失望投賣로 큰 暴落도 업슬것도 갓다。

그러면 伊「에」戰爭은 擴大되고 世界大戰도 업는 안나오리라면 그때는 日本自體의 經濟事情에 依하야 市勢에서 騰落을 示할것인데 지금 財界基調에 變化가 업스며 買氣를 쑥 빼어버리고 보면 어떠할가? 商品界好調 米高 生絲高에 因한 農村好景氣 低金利 增產景氣[illegible] 一方으로는 政局推移、滿洲 景氣 等[illegible]材料가 마른것이 事實이나 一方으로는 政局推移、滿洲事變前後의 好況를 여러번 들고 好材料 또는 戰爭氣分을 입어 伸長되는 株式이 만흘것이니 대개 强勢一段落을 압두고잇다는 것이 一般의 說인듯하니 今後의 趨勢도 아조 悲觀할 것은 아니다。